

# 교회연합신문

www.ecumenicalpress.co.kr www.ecumenicalpress.co.kr www.ecumenicalpress.co.kr www.ecumenicalpress.co.kr



주간 창간 1991. 11. 16 대표전화 (02)747-1490 THE ECUMENICAL PRESS 제 890 호 2012년 4월 1일 (일요일) 1부 1,000원 1년 40,000원

## 올해 부활절연합예배 '연합은 없다'

### 교회협 중심 교단연합측·한기총으로 갈라져 개최

한기총에서 시작된 한국교회 내분이 부활절연합예배로까지 이어질 태세다. 지난 2006년 이후 한기총과 교회협의 공동주최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드려왔던 부활절연합예배가 결국 교회협을 중심한 교단연합측과 한기총으로 나뉘어 따로 드려지게 됐다. 지금의 이런 구도는 한기총 사태를 둘러싼 집행부와 비대위측 간의 대립이 그대로 반영되어 이번 부활절연합예배가 한기총 사태의 정치적 싸움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변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올해 부활절연합예배가 예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곳은 교단연합측이었다. 예장통합의 총회장 박원근목사를 공동대회장으로 하는 교단연합측 부활절준비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지하 다사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한기총과

교회협의 이름을 빼고 교단연합으로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동준비위원장 전병금목사는 "지난 2월 6일 각 대표들이 모여 한기총의 혼란으로 올해는 공동개최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교단 연합의 이름 아래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교단연합측과 한기총 양측 모두는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는데 있어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해 부활절연합예배를 지켰던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1순위로 떠올랐으나, 정작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은 "한기총과 교회협 모두가 함께 하는 예배가 아닌 이상 장소대여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보였다.

결국 교단연합측이 선택한 곳은 감리교의 정동제일교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정동제일교회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치를 것이며, 설교는 예장백석의 성경총회장 장종현목사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예배 인도는 공동준비위원장인 전병금목사가, 특별찬양은 백석예수대학 교의 성가대 및 오케스트라가, 성만찬 집례는 교회협 회장 김중훈감독과 박위근목사가 공동으로 맡게됐다.

문제는 축도였다. 원래의 계획으로는 공동대회장인 예장통합의 총회장 이기창목사를 내정했으나 이에 대해 예장통합측이 참여한다는 답변을 듣지 못한 관계로, 예장통합의 원로나 중진 중에서 축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기총은 이번 교단연합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단연합측이 준비하는 부활절연합예배는 원칙에 어긋나며, 이날의 기자회견 역시 원칙에 어긋난 불법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기총은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기총과 교회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순서에 따라 한기총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회협에 공문을 보내고,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기총은 교단연합측의 기자회견 이틀날 부활절연합예배 준비모임을 갖고 한기총 단독의 부활절연합예배를 치를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예년과 같이 할 수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자체적



◇지난 22일 열린 한국교회연구원 발표회 '한국 개신교의 기원 언제로 잡을 것인가?' (관련기사 14면)

## 연지글

### 보편적 기독교를 지향하라

◇오늘날의 역사적 기독교는 어느날 하늘에서 막바로 한국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해(害)를 받기 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고 선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유산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이(골1:26),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이다(엡 3:9). 그러나 이처럼 거룩한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2천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탐욕과 오만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함께 교회는 수많은 민족의 유산과 문화적 습합, 인본주의 사상과 이교적 세속주의가 유입된 교회이다. 이들 문화적 유산들이 교회를 순수한 성경적 초대교회로 보존하려는 노력에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는 '보편적 교회'로서의 존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이 보편적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하고, 세속화하고, 상업화하고, 심지어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른다.

◇그 가운데 어떤 편협한 사람들은 보편적 역사적 기독교가 추구하는 모든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마치 새로운 기독교의 원형을 어디에선가 다시 찾은양 망발을 쏟아내며 분파주의를 만든다. 이는 그들의 무지이거나 계획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행위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독교의 원형은 성경 속에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순수한 기독교의 본디 모습이다. 그러나 그 성경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경에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하여 지금 한국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친다면 이는 국법을 어긴 살인자가 되고, "너희 사는 땅에서 우상을 모두 제거하라"고 했다 하여 타종교의 상징물들을 다 때려 부순다면 실정법 위반으로 감방에 감히게 된다. 이런 기독교는 편협한 종파일 뿐이지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어떤 이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가 원문에 홀리 가톨릭 처치(Holy Catholic Church)라고 쓰여 있다고 하여 역사에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The Roman Catholic Church)로 착각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무지이다. 여기서 가톨릭 처치는 '거룩한 보편적 공교회'를 뜻하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예는 많이 있다. 교회의 보편성을 잃은 얼치기 신앙교육이 또다른 이단을 낳게 되는 못자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올해 교회협 총회, 11월 18일~20일

장소는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 선교적 과제 발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가 지난 19일 '교회협 61회 총회·예규메니칼 선교대회 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회 일정 및 장소를 확정하고, 위원회 조직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올해 총회가 단순히 총대와 위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총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 향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초창기 역사가 담겨있는 정동근역 전체를 무대 삼아 예배, 선교, 문화, 신학이 어우러지는 일차와 평화의 '총회와 예규메니칼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WCC 제10차 총회만이 아니라 '2015년 남북분단 70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

년',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 등 우리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현안들을 대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협은 총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가치의 혼돈, 공공성의 위기 등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전행사로 음악회, 영화제, 장의행사 등 어울림 한마당을 열며, 불거리, 먹거리, 알뜰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직은 △위원장 손달익목사(예장통합) △부위원장 박종덕사관(구세군), 김광준신부(성공회), 고종진목사(기하성 여의도측), 강현길목사(루터회) △서기 조정열목사(기갑) 등이다. 한편, 제2차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 예장통합 헌법위, "부총회장 후보 2인 모두 추천하라"

### 서울강동노회와 서울서남노회 질의 건에 대해 유권해석

예장통합측 서울강동노회(노회장 이현수목사)가 금년 9월 제97회 총회를 앞두고, 노회의 추천권을 내세워 부총회장 후보 2명의 후보 중 특정 사한 총대 중에 소장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회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의 의미는 귀 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으로, 귀 노회의 경우처럼 차기(97회) 부총회장 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던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 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통합측 총회 헌법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평택 동산교회에서 위원회 전체 모임을 갖고, 서울강동노회와 서울서남노회의 질의 건에 대해 총회임원 선출방식은 헌법 정제 제12장 제85조에 "총회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

되 선거규정에 따른다"고 했고, 총회 임원 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3항 기에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해당 지역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임직 20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 소장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회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의 의미는 귀 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으로, 귀 노회의 경우처럼 차기(97회) 부총회장 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던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 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서울강동노회는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와 비전교회 정도출목사가 출마했고, 서울서남노회는 광진교회 민경실목사와 안산제일교회 고훈목사가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강동노회는 중경노회 장들로 구성된 '기획자문위원회'가 "2012년도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본 노회에서는 이승영목사를 2012년 제50회 노회(봄노회)에서 단일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다시 지난해 11월8일 개최된 서울강동노회 회의안 124쪽에 그대로 기재해 다른 경쟁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시비가 일었다.

(본보 3월25일자 14면 참조)

##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 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롬 6:9)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축복의교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

- 공과 행복과 믿음을 주는 교회
-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이 있는 교회
-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담임목사 이요한 (宗哲)**

경력 현 축복의교회 담임목사, 현 시티엔방송 상임 논설위원, 현 교회연합신문 실만한물가 52주 주일 설교 집필위원, 현 교육정보개발원 교수, 전 충청교회, 성복교회 등 17년차 사역

학력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M.Div(Ed.u) 신학석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사(MPA),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MA), 배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MBA),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Th.M), 충신대학교 박사원 ∞ 미 리플드(RTS)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D.Min), 국제개혁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학박사(D.Min)



전도사 임은영

### 부목사 박아청

현 계명대학사범대학교 명예교수, 현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현 한국아동교육학회 회장, 계명대학교, 연세대학교대학원 졸업, 오사카대학교대학원졸업 교육학박사



전도사 김은희

### 부목사 박상중

고신대학교/고신대학대학원, 미 Oral Roverth university, 충신대학신학대학원, 전 총의교회행복교회 등 5개교회 설립, 전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 현 시티엔방송 대표



사설

부활절 연합예배까지 분열시키나

한국교회에 '분열 귀신'이 또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기총의 분쟁을 틈타 나타나고 있는 이 분열 귀신은 195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형제를 향해 '용공'이나, '신신학 이단'이니 하며 "저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며 교회를 갈라 오래 동안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게 하더니, 이제는 사소하다면 아주 사소한 한기총의 대표회장 자리 하나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끝내 살림을 따로 차리고, "저들과는 상종하지 않자"며 분열시키고, 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상징적 행사인 부활절 연합예배마저 따로 모이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한기총의 분쟁을 한국교회의 분열로 고착시키려는 사탄의 음모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1959년 이후 분열했던 부활절 연합예배가 어떻게 하여 지난 40여년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로 드러져 왔는가를 안다면, 교계 지도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돌로 나누자는 발상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분열해 있을 당시 소위 보수측과 진보측으로 나뉘어 얼마나 활발한 연례를 했는가. 그나마 에큐메니칼 정신에 투철한 양측의 존경받는 지

도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 서로의 신뢰를 쌓아 가깝스로 이루어낸 것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아닌가. 부활절 연합예배가 없었다면 한국교회에 오늘이 한기총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아직도 보수측은 진보측을 향해 '칼축 이단'이라며 교인들로 하여금 상종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무섭고 한심한 죄악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신 형제를 지옥 자식으로 정죄하고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한기총의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거나 봉합된 것은 아닐지라도 부활절 연합예배만은 따로 모여서는 안된다. 다른 문제는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부활절 연합예배만은 교회합과 한기총이 한발씩 양보하여 그 조직을 하나로 하여 반드시 한 자리에서 드러야 한다. 교계 지도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따로 드리지 말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한국교회 에큐메니칼운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과감히 조직에서 소외시켜서라도 부활절 연합예배는 하나로 가는 것이 옳다.

불교계의 국가조찬기도회 시비는 오만

이명박 정부 내내 종교평화시비를 제기하며 뒤로는 친불교계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정부 지원예산을 계속 늘려가며 독식하고 있는 불교계가 이번에는 기독교계의 연중 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를 시비하고 나섰다. 불교계는 선거를 앞두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낙선대상자로 지명하는 등 다종교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는 MB 정부 초기 이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라는 이유를 약점으로 삼아 마치 MB 정부에서 불교가 홀대를 당하는 양 공무원 사회의 종교평화 운운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자, 그 후부터는 정부를 상대로 온갖 명목의 지원예산을 끌어가고 있다.

정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불교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2137억 원이다. 그 중에 불교에 지원한 금액은 1634억 원이고, 기독교와 천주교에 지원한 금액은 기껏 88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관리기금법'은 향후 5년간 5000

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불교에 지원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사찰의 주지가 관광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순수 불자들의 신행(信行)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 '연등축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그런 불교계가 매년 시행해온 기독교의 연중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를 시비하는 것은 이웃종교에 대한 무시이고 오만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에 하나 기독교계가 불교계의 연중행사인 초파일 연등축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면 불교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솔직히 국가조찬기도회는 실제 행사에 지나지 않지만, 연등축제는 시가행진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을 향한 불교 포교 행위가 아닌가. 기독교계의 국가조찬기도회는 기독교인들의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모이는 기도회이다.

불교계가 더 이상 기독교계와의 관계에서 엉뚱한 시비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종교계와 우리사회를 위해 좋은 태도가 아니다.

기장 21세기중장기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 전 병 금 목사

“복음 없는 교회의 외침은 그저 정치적인 집단일 뿐”



“오늘날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기독교가 맥을 못추고 있다. 그렇게 강력한 기독교가 왜 무너졌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의 기독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21세기중장기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 전 병금목사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기독교에 대한 탄탄한 목소리를 토해냈다.

전목사는 전 세계를 비롯해 한국 내에서도 기독교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대교회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던 상황이었으며, 유대교로 인해 기독교는 이단이 되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조차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도 기독교는 복음을 능력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고 전했다.

전목사는 2000년 전 바울이 가슴에 가졌던 복음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목사는 “바울선생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능력만을 갖고 당시 세계의 중심

이었던 로마에 갔다”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가진 능력은 오로지 복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오늘날의 신학도 거기에 한몫했으며, 복음이 깔리지 않는 수많은 교회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탄

강조했다.

한편, 기장 21세기 중장기 발전기획위원회는 기장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됐다. 본 위원회는 농어촌 문제, 지역간 연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했다. 전목사는 “우리 교단 역사 인권, 생태, 환경 문제 등에 가장 앞서 나서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복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며 “만약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그저 진보정당과 같은 정치적인 집단이 될 뿐이다”고 경고했다.

전목사는 기장교단이 가진 내재적인 힘에 주목했다. 그는 “비록 1600개 교회 밖에 없는 작은 교단이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능히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것이다”며 “기장이 복음의 능력을 폭발시키는 한 한국의 기독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교회나 바울선생의 상황에 비해 우리 교단은 재물도 있고, 인제도 많은 매우 편한 상황 이다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발휘했던 복음의 능력을 본받아, 우리가 전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장 21세기 중장기 발전기획위원회는 기장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됐다. 본 위원회는 농어촌 문제, 지역간 연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채진태기자)

인사동정

홍재철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다음 달 8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201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관한다.

김영주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는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달개비에서 열리는 제61회 총회·에큐메니칼 선교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다.

윤희구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오는 4일 서울 인사동 승동교회에서 열리는 '한국장로교 총회설립100년기념축대회'에 참석한다.

박익근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총회장)는 오는 8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리는 '2012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관한다.

이기창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총회장)는 다음달 4일 서울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장로교100년사 진전 개회예배'에 참석한다.

사령

명 편집국 취재부 기자  
차진태 취재부 차장  
2012. 4. 1

교회연합신문

기고

이화글로벌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개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는 오는 7월5일부터 1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EGEP)을 갖는다. EGEP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비정부 공익 부분 여성인재의 역량강화 및 차세대 글로벌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EGEP는 1년에 2회(1월, 7월) 각각 약 2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이화 및 국제적인 교수진에 의해 운영되는 2주 단기 코스(비학위과정)이다.

(문의 http://egep.ewha.ac.kr)

창조과학 토요강좌

경기도 시흥에 있는 창조자연사 박

물관에서 <창조과학 토요강좌>를 개설해 오는 7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월 4주동안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전일강사는 창조과학 전문가 김치원목사(가락교회 담임)가 맡게 됐다. 등록비는 2만원이며, 강의 내용은 1강 창조과학의 중요성, 2강 기원론의 중요성, 3강 첨단과학과 자연의 관계, 4강 지구창조의 과학적 실상, 5강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6강 인류의 기원과 인체의 신비, 7강 창조론과 진화론의 영적 전쟁, 8강 창조에서 본 인간의 성 등이다. (문의 010-3938-1947)

이미지 전도 컨퍼런스

하나님 품으로 전도 훈련원(대표 김인심집사) 주관으로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산성교회(담임목사 김성지)에서 '제15차 이미지 전도 컨퍼런스'가 열린다. 실제적인 전도 훈련을

강조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도의 이론과 동기 부여를 넘어 실제 전도 현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인심집사가 참여해 효과적인 전도팀 지도와 태신자를 관리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1-242-7773)

교회연합신문 THE ECUMENICAL PRESS

110-460 서울 중로구 연건동 195-19 대표전화 (02)747-1490  
광고신청 및 독자서비스 전화 (02)747-1491 Fax (02)747-1498  
홈페이지 www.ecumenicalpress.co.kr 이메일 epnews@empas.com  
발행인 겸 편집인 강준오 인쇄인 송재봉 이사장 이강욱  
이 사 권태일 김우신 반인용 신태용 유종만 이성철 이종택 이준원 조현식  
차기천 최석우 김효원 편집이사 이명철 기획이사 유무환  
구독료 1년 40,000원 1부 1,000원  
1991.7.3 등록번호 다1705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 예정연 2012년 부활절 연합예배

<b>이사장</b> 조성훈 목사	<b>이사</b> 이종택 목사 고문	<b>이사</b> 경원수 목사 법률고문	<b>이사</b> 양창부 목사 자문위원	<b>이사</b> 강재원 목사 자문위원	<b>이사</b> 정영진 목사 자문위원	<b>고문</b> 김광본 목사 자문위원	<b>대표회장</b> 김인식 목사	<b>상임회장</b> 장성화 목사 부회장	<b>상임회장</b> 장대식 목사 부회장	<b>상임회장</b> 김주규 목사 부회장	<b>상임회장</b> 김현세 목사 부회장	<b>상임회장</b> 정한식 목사 부회장	<b>상임회장</b> 이영수 목사 부회장	<b>부회장</b> 임요섭 목사 부회장	<b>부회장</b> 김행은 목사 부회장	<b>부회장</b> 신기호 목사 부회장													
<b>법인이사</b> 이종택 목사 김인식 목사 경원수 목사 김광본 목사 양창부 목사 강재원 목사	<b>법인검사</b> 민승국 목사	선우호 목사 자문위원	이상형 목사 자문위원	송기호 목사 자문위원	조영길 목사 자문위원	김봉환 목사 지도위원	홍광표 목사 지도위원	최래승 목사 사무총장	류한상 목사 서기	한길용 목사 부서기	양재일 목사 회계	김성곤 목사 부회계	조창희 목사 감사	김화인 목사 감사	김학용 목사 총무	이기안 목사 총무													
홍혁기 목사 지도위원	정수용 목사 지도위원	임성수 목사 지도위원	김영관 장로 지도위원	윤영수 목사 지도위원	김금복 목사 홍보위원장	박춘복 목사 총무	신상철 목사 총무	조용진 목사 총무	김자이 목사 총무	함명임 목사 총무	민승국 목사 총무	김영수 목사 총무	강주봉 목사 총무	노문호 목사 총무	이부심 목사	정영희 목사	김성호 목사	조현준 목사	신요한 목사	김진용 목사	김영환 목사	김익배 목사	장관희 목사	오연식 목사	조경택 목사	손택 목사	박병자 목사	김영욱 목사	이은원 목사

■ 해설/분열로 가는 2012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 한기총과 교회협간 전체적인 반목으로 번질 우려

## 양측의 무리한 성도동원과 과시적 '보여주기' 예상돼



◇지난 26일 진행된 교단연합측 기자회견(사진 좌), 27일 열린 한기총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모임(사진 우), 결국 올해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양측으로 나뉘어 각각 개최됐다.

한기총과 교회협이 2006년 이후로 공동으로 주최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가 끝내 깨질듯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한기총 내분이 결국 부활절연합예배로까지 번진 지금의 상황에 이를 바라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교회 보수권을 대표하는 한기총과 진보권을 대표하는 교회협이 그나마 1년 중 유일하게 함께하는 행사로, 그동안 보수권과 진보권의 화합과 한국교회 연합의 매우 중요한 매개체이자 희망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런 부활절연합예배가 깨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기총 내분의 차원을 넘어 한기총과 교회협의 반목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교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 점을 염려하고 있다.

### 갈라선 교회협과 한기총

이런 우려는 이번 부활절연합예배 준비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교회협이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함께 하는 교단연합측은 이번 한기총 내분의 비대위축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리고 비대위는 현 한기총 집행부와 매우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9일 한국교회연합회라는 새로운 연합단체 창립을 앞두고 있다. 결국 교회협이 교단연합측과 함께 한다는 것은 현 한기총 집행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며, 한기총의 지금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교회협의 태도를 현 한기총 집행부가 달가워할 리 없다. 지난 27일 부활절연합예배 준비모임에서 대표회장

홍재철목사는 교회협 총무 김영주목사와의 전화통화 및 만남의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깬 것은 바로 교회협이고, 이것은 결국 한기총과 교회협이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게 만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모 교단 총무는 "어차피 잘된 일 아닌가? 우리는 교회협과 신조, 교리, 정치,

## 교회협, "한기총사태로 정상적 준비 불가능했다" 한기총, "부활절 연합예배 깬 쪽은 교회협이다"

부활절 모두가 다르다. 이 기회에 교회협과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면서 두 단체는 애초에 함께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사실 교회협과 한기총의 관계는 꼭 부활절연합예배가 아니더라도 올해 WCC 문제로 더욱 악화됐다. 한국교회 내에서 WCC 반대를 가장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인 현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목사와 그 집행부는 어찌보면 교회협 입장에서 WCC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WCC 부산총회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반대를 전명치 않았던 한기총이 최근 WCC반대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교회협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무리한 '성도 동원' 대결 예상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지금에 와서 원인을 찾고,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부활절이라는 은혜롭고 역사적인 날, 용서와

화해로 연합하지는 못할지언정, 싸움을 그치지 않고 가장 경건해야 할 예배마저도 분열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한국교회 전체의 죄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활절이 양측 싸움의 연장선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올해 역시 양측이 노리는 것이 바로 '보여주기'다. 그에 따른 비난이 야당연히 예상하겠지만, 그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양측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대규모 예배가 올해는 경쟁까지 할 것으로 보이나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 연합 없는 연합예배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인간의 추악한 죄까지도 모두 씻어냈던 예수의 보혈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줬던 엄청난 역사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다시 반목하고 있다.

몇 년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의 주제가 바로 '한국교회에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라'였다. 이후 한국교회가 부른 희망의 노래는 대체 무엇이였는가? 경제는 무너지고, 서민들의 가정은 파탄 나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극에 달했다. 이 모든 게 한국교회의 탓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는가?

지난 부활절연합예배 이후 한국교회가 노래한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였다. 그리고 올해 한국교회는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절망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

(차진태기자)

## 토요시평



이광호 목사 (실로암교회)

해마다 이맘때 즈음이 되면 특별한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다. 교인들은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지킨다.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활 속에 반영하고자 애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소 반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 년 가운데 한 주간을 정해 고난을 체험함으로써 종교적 만족을 꾀할 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성도의 고난에 관한 솔하게 많은 교훈들이 나타난다. 사도들은 그에 연관된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감내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참된 위로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롬8:17;벧전3:17, 참조).

이와 같은 성도의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고난을 겪지 않는 성도는 존재할

해롯왕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인근에 영아 살해정책을 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 사역 기간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이 그에게 온갖 시련과 더불어 심한 고통을 주었다. 결국 그는 잔인한 고문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오늘날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그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의 추종자들을 좋아할 리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 그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세상과 달라졌는가? 분명한 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형편은 동일하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그에 대한 아무런 위우침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은 죄악 세상의 가치관에 연관되어

##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진정한 고난'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 한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가? 우리 주변의 대다수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 즉 박해자들의 의해 심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바는, 복음으로 인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연중행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교인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 동안만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열성적인 신앙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 년 중 며칠간이 아니라 한 평생 고난이 따르게 된다. 그것은 물론 고난을 당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다거나 의도적인 경험을 통해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불가피하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해의 대상이 되셨다. 당시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반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현실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 사라지는 안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앙이 어린 교인들은 세상의 번영을 탐내며 그 쪽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차 세속화 되어 가게 된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형편을 보며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고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뿐 아니라 배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시대 다양한 지역에서 공히 발생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일 년 한 차례 맞봄으로써 만족해하는 종교적인 낭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 교단 분리 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산하 한남노회, 충청노회, 중앙노회, 중부노회, 부경노회 및 합동총회신학·신대원(서울본교), 부산신학교, 천안신학교, 광주신학교, 영남신학교, 대구신학교, 청주신학교 등 5개 노회와 7개 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총회장 박상하목사)측으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공고합니다. 따라서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장 박상하목사)측 총회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협력하던 모든 일을 중단합니다.

### 분리사유 :

- 2012년 3월 12일에 실시한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총회에서는 실행위원회(총회 임원, 총회총무, 각 노회장)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회 아닌 총회 회원들이(실명 생략) 참석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동의 제창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총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 한남노회는 특수노회라는 특정 하에 현 노회장이 신학교의 임직을 사임하였다 하여 현직에 있는 노회장을 불법이라 하며, 총회의 임의대로 다른 이를 지명하여 그가 한남노회의 노회장이어야 한다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의사를 결의하였습니다.
- 또한 총회직인을 사용함에 있어 이제까지 한 번도 불상사가 일어난 적이 없이 잘 사용하여 왔음에도, 총회 인준없이 직인을 다시 제작하여 산하 노회와 신학교(본교)에 새 직인 사용을 통보하여 서로의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노회들의 사용 인감들까지도 보고케 하여 감동하겠다는 너무나 지나친 불필요한 처사를 함으로써 총회법에도 없는 월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총회 공문 제12-111호, 제12-112호, 제12-N1호, 제12-H1호 등에 총회 총대들의 인준도 없이 새 직인을 사용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 이를 다 제기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 생각하기에 중략하며, 이에 더 이상 상기 5개 노회와 7개 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장 박상하목사)측과 함께 할 수 없어 이에 결의를 하고 분리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2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한남노회	노회장	최병욱목사	외 노회원	일동
충청노회	노회장	이용운목사	외 노회원	일동
중앙노회	노회장	유동수목사	외 노회원	일동
중부노회	노회장	지창희목사	외 노회원	일동
부경노회	노회장	신해수목사	외 노회원	일동

합동총회신학신대원 본 교 이사장 황은주 사모

부산신학교	학 장	김진국 목사
천안신학교	학 장	이용운 목사
광주신학교	학 장	신승일 목사
영남신학교	학 장	최영수 목사
대구신학교	학 장	김정순 목사
청주신학교	학 장	류재룡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변화의 바탕에 복음의 능력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응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시대가 지날수록 전 사회적인 변화가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경제, 정치, 환경, 이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 변화는 우리의 생활 전반을 바꿔 놓았고, 시대적인 문제점도 낳고 있다. 특히 변화에 있어 유독 느리게 반응하는 교회에게는 요즘의 빠른 시대변화는 매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유정성 목사) 산하 21세기성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 전병금목사)는 시대변화에 발맞춘 교회의 올바른 자세를 모색코자 지난 22일 서울 화곡동 강남교회(담임목사 전병금)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응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단순히 기독교나 기장 교단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경제, 민주주의, 문화 등을 주제로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진단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교회의 대처를 간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로마를 향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전병금목사는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힘에 대한 위대함을 강조했다. 전목사는 "오늘날 전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바



울은 그렇게 필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 로마를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인권, 생태, 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도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전한 총무 배대진목사는 오늘 심포지엄에 대해 "미래사회 변화를 살피고 교단 미래계획을 세우는 컨설팅의 자리"라며 "한국교회의 위치와 우리교단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상진교수(서울대명예교수)가 '지구적 위험, 경제양극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제2의 근대화의 길'을 주제로, 김성재목사(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SNS, 문화 이니셔티브, 집단 지성 시대 교회와 신학'을 주제로, 이성희목사(연동교회)가 '미래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한교수는 지금의 세계적 변화에 대해 사회통합을 근원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양극화의 구조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특징되는 생태위험이 매우 위협스런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평균 40여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했으며, 특히 언론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내재된 시민의 기본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목사는 '미래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응'이란 발제에서 지금의 시대 상황은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르며, 시대정신도 시대감각도 다름은 인정했다.

그렇기에 이목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에 대해 △정보의 흐름을 붙잡는 목회 △영성의 파도를 타는 목회 △가정이 중심이 되게 살리는 목회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묶는 목회 △감동을 주는 목회 △평신도가 교회의 중심인 목회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목회 △리더십을 극대화하는 목회 △전문성을 갖춘 목회 △디아코니아로 섬기는 목회 문화를 이해하고 접목하는 목회 △스마트로 무장한 목회 등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는 시대에 따른 적응을 위해 미래 사회변동에 대한 인지능력을 갖춰야 하며, 미래현상에 대한 성격적 근거를 끊임없이 찾을 것을 조언했다. 스마트 환경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목회 환경을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진태기자)

창조론과 진화론

생체모방공학의 실례

언어의 첨단 후각능력



김지원 목사 · 창조과학 전문사역자 · 가락교회 담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언어)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언어는 언어학 언어의 회귀성(回歸性) 어류이다. 몸은 긴 원통 모양이며 옆으로 다소 납작하다. 몸길이는 약 70cm 정도이며 송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송어보다 몸의 폭이 좁다. 머리가 원뿔 모양이고 주둥이가 나와 있으며 이빨은 뾰족하다. 송어나 산천어처럼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는 기름지느러미가 붙어 있다. 몸 빛깔은 등 쪽이 어두운 청색이고 배 쪽이 은백색을 띠지만, 산란기가 되어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몸 색깔이 더욱 진해지고 몸 옆면에 붉은빛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다. 언어의 산란(産卵)시기는 가을이며, 우리나라의 두만강에서 낙동강까지의 연해와 북태평양 연안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언어는 고급 생선 요리로 유명해서 통조림을 만들어 먹거나 찜, 구이, 훈제 등 조리 방법이 다양하며, 언어알도 인기가 많다.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비타민 A와 D가 특히 풍부하며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언어의 존재의 기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진화론자들은 언어 역시 다른 물고기들과 같이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물고기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1:21) 언어가 진화에 의하여 생긴 생물인지 아니면 창조에 의하여 생긴 생물인지는 언어가 가진 첨단기술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언어는 맑은 강물에서 태어나 잠시 살다가 바다로 나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내다가 산란할 정도로 성숙하게 되면 수 천리, 수만리 떨어진 바다에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แม่น้ำ)으로 올라와 알을 낳고 죽는다. 언어의 이 신비한 습성에 과학자들은 놀라움으로 주목하고 있다.

언어는 맑은 물이 흐르는 세계 각처의 강을 고향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동해안의 몇 강(남대천 등)이 언어가 찾아오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인공적으로 언어 알을 대량 부화시켜 방류해 줌으로써 더 많은 언어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대천이 오염되어 회

귀하는 언어 수가 줄어들어 염려하고 있다.

언어는 땅콩 한 알 크기의 매우 작은 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강을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언어가 모천으로 회귀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든 사물은 약 400년 전인 1599년에 노르웨이 사람인 피터 크로손 프리슨이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강이 많기로 유명하고, 그 강에는 모두 언어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는 300m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는 두 개의 강에 각기 다른 종류의 언어가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낚시꾼이 잡아 온 언어의 모양만 보면, 어느 강에서 낚은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북아메리카에도 언어가 찾아오는 이름난 강이 많다. 그 중 하나인 콜롬비아 강에 언어 산란철이 오면 많은 낚시꾼이 찾아든다. 언어가 수 천리나 되는 긴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면, 야생 곰들도 물속에 들어가 멋진 솜씨로 언어를 잡아 특식을 즐긴다. 또 이 강에는 수력발전용을 위한 저수 댐이 중간 중간 일곱 개나 있다. 각 댐에는 언어들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특별히 만든 물길(魚梯)이 준비되어 있는데, 언어 철이 되면 이 '물고기 계단' [魚路]을 따라 언어들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도 한다.

언어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어려운 연구를 해왔다. 그들의 신비는 대단히 깊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가 맹렬히 진행되면서 신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언어의 회귀(回歸)의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아갈 때 옛날에는 교통지도나 나침반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소위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너무 쉽게 길을 찾아간다. 그러나 수천, 수만 km의 장거리를 여행하는 언어에게는 나침반도 내비게이션도 없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모천(母川)을 찾아간다. 우리는 언어에게서도 창조주의 지혜와 솜씨를 볼 수 있다.

한국구세군

금융감독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IT 나눔 실천

강원지역 2곳의 지역아동센터에 PC 교육실 마련

한국구세군(사령관 박만희)은 지난 27일 '눔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과 강원지역 2곳의 지역아동센터에 22대의 컴퓨터를 기증, 설치하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소를 조성해 주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컴퓨터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여러 곳에 후원 요청을 해왔던 북춘천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빠듯한 운영비에 컴퓨터 기자재를 구입할 형편이 안되어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며 "현재 2대 있는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비롯한 정보 검색으로 활용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부족하여 늘 아동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융 감독원 관계자들 덕분에 어께를 펼 수 있겠다"며 전담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표했다.

전담식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작은 정성이나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하니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 IT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계속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국구세군과 함께 지난 해 말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빈곤층 및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설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통해 생필품을 전달할 바 있으며,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음악회

교단 원로 및 임원 참석해 성대탄막 울려

올해 순차적으로 열리는 총회설립100주년 기념행사 중 첫 번째 행사인 기념음악회를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올렸다.

총회설립100주년 12개 행사 중 필두로 열린 기념음악회는 증경총회장, 총회 임원, 총회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교회와 교단을 발전을 자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선규 아나운서 사회로 드린 기념음악회는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 김홍식)의 반주에 주일학교연합회 어린이합창단의 '신자되기 원합니다'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CCM 가수 박종호, 소프라노 박미혜, 뮤지컬 가수 이태일, 소향, 미니정, 성원교회 광명교회 세 에텐교회 주일학교연합회 총신대신대학원의 연합합창단의 '주의 보혈'과 '할렐루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편 공연에 앞서 총회장 이기창목사는 '여호와를 찬양하자'란 설교를 통해 "지난 100년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교단을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자"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2012학년도 1학기 개강심평수련회 개최

교수와 선후배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 가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제32대 원우회(회장 조용배전도사)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2012학년도 1학기 개강심평수련회를 가졌다.

교수, 원우, 여신원, 가족,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는 당진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이수훈 목사가 주강사로 함께 한 가운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전체 주제로 총 5회의 말씀을 전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매학기 초에 개강심평수련회를 가지는데, 국내 주요 수양관을 빌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해를 시작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신입생을 맞이하며 열리는 봄 개강심평수련회에는 신입 원우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전체 행사를 주관한 원우회장 조용배전도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감격함에 머무르지 않고, 신학교에서의 마땅한 준비를 고민하고 동기를 부여 받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령축복특별성회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여 주리니" (행2:17)



대표회장 최승남 목사, 공동회장 서재오 목사, 여성회장 이사야 목사



총무 김안수 목사, 회계 서경자 전도사, 여성총무 김순덕 전도사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예비된 주의 은혜를 입으라! (요한 2:9)

집회장: 1. 영성의 회복 2. 믿음의 능력 3. 치유 능력 4. 방언을 받음 5. 교회와 가정의 축복

집회장: 치유기도, 개인 예언기도, 은사 접촉기도, 비리크(재정축복)의 기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점심무료 제공)

장소: 축복교회 대성전

회장: 010-2380-3579, 총무: 010-4872-7213

성령사도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928-1 (지하철2호선 봉천역 1번 출구)

목사·전도사신/편입생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소속 신학원임

신학연구원(목사과정)은 정통 보수 신학교로써, 본 신학은 예정된 가맹 기관 신학입니다. 사명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 신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소액 현금으로 공부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학입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책임 있는 목회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특전!! 자매 교육원에서 전문학사, 학사와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과 건강가정사의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urse, Duration, and Details. Includes 신학부과정 and 연구원과정.

★본 신학연구원을 졸업한 자는 남매 예정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음. 자매 교육원인 한국복지문화교육원에서 주 1-2회 수확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Details. Includes 전문학사반 and 4년 학사반.

사단법인 예정연회회 기독교문화선교회 선교총회신학연구원

교육학박사 정상문 목사 461-862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성대로 249번길 6(신흥3동) (6층신선동3층) 출구, 종합시장 지하상가4번 입구

정상문 목사 TEL.(031)745-0168, 010-5536-888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신학생 신입, 편입생/수시모집

본 총회신학 및 신학연구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인준한 정통 보수 신학교입니다. 사명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 신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적은 돈으로 공부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학교입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urse, Details. Includes 신학과목회학과목회학과.

Table with 2 columns: Course, Details. Includes 신학연구원 and 편입생.

타 신학생이나 일반대학 졸업자 및 동등자격자는 신학부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음

※계절학기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정 이태랑 목사, 권택재 이선수 목사 (총회인준)인천총회신학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55-1 첨가는 교회(서인원 I-C에서 300m 우측) TEL.(032)572-1189, 576-1189, 원장 H.P 010-5408-0691

이사장 H.P 011-9777-4424, 교무처장 H.P 010-8862-5044

성경도 개혁주의 보수신학 목사·전도사신/편입생 모집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가맹 교단임

본 총회신학 및 신학연구원(목사과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인준한 정통 보수 신학교로써, 본 총회는 한기총 가맹 교단입니다. 사명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 신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적은 돈으로 공부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학교입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책임 있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urse, Details. Includes 신학부과정.

Table with 2 columns: Course, Details. Includes 연구원과정.

신학연구원(목사과정) 제2년 제4학기 신학과 목회학과를 졸업한 자 및 동등 자격자

편입생(수시모집) 타신학생이나 일반대학 졸업자 및 동등자격자는 신학부 제3학년에 편입 할 수 있음.

통신신학생(수시모집) 시간과 경제, 기타사정으로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자들에게 통신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총회 신학연구원을 졸업한 자는 남매 구별없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음

총회신학·신학연구원 학장/목회학박사/영예신학박사 이강익 목사 4212-8121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746-23 (1호선 부천역 남부 서울방향 4번 우측역 입)

TEL. (032)664-1067, FAX. (032)664-1068

# ‘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의 상징

## 사회와 민족의 희망을 말하는 교회가 부활절연합예배마저 갈라서는 안된다



배성산 목사  
(서울교회 명예목사)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운동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세계교회운동, 교회일치운동, 교회연합운동 등으로 진행되면서 8.15해방 이후 1947년부터 시작된 부활절연합예배가 그 중심 역할을 해왔다.

부활절 예배는 장로교회의 분열의 파급 등으로 1962년부터 보수·진보의 양측으로 갈리어 예배를 드렸으나, 1973년부터 양측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연합예배로 환원되어 지금까지 부활절연합예배가 이어져왔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파들의 획일적인 일치라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교파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치를 지향해야 하고, 성서의 다양한 메시지들에 근거하여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일치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 하나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우리는 이 주어진 일치를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소명 앞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참여하며 연대하는 예배공동체로서, 초기 신앙은 부활신앙이었고 하나된 예배공동체였다. 이처럼 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은 각 교파를 하나로 묶어 놓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교파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방향을 연대(solidarity)해서 모색해 나가는데 그 역점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신앙고백의 장(場)을 열어 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족도 분열되어 있고, 교회도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 있고, 각계각층이 갈등과 분열로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한국교회가 그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일치운동의 분을 보여야 한다. 동원 보다는 참여가 우선이고, 주장보다는 화합이 되어 함께 하나됨의 뜻을 담아 부활절연합예배 전통을 이어 가야 한다. 부활절연합예배는 ‘예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



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의 상징으로서 유일한 연합행사이다.

부활절연합예배의 역사는 맨 처음 제1회 부활절연합예배는 1947

년 4월 6일 부활절 새벽6시 서울 남산광장에서 1만 5천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직목사 설교로 진행되었다. 부활절연합예배는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고 1951년부터 1953년까지는 피난지 부산에서 개최되었고, 또한 1960년대가 되면서 부활절연합예배의 개최가 어렵게 된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극우적인 반공 사상이었다. 그로인해 보수측과 진보측이 나누어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1973년 양측에서 연합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 부활절연합예배는 가장 많은 교파가 참여하는 최대 행사 에큐메니칼운동 약화시키려는 분열시도 경계해야

년 4월 6일 부활절 새벽6시 서울 남산광장에서 1만 5천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직목사 설교로 진행되었다. 부활절연합예배는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고 1951년부터 1953년까지는 피난지 부산에서 개최되었고, 또한 1960년대가 되면서 부활절연합예배의 개최가 어렵게 된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극우적인 반공 사상이었다. 그로인해 보수측과 진보측이 나누어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1973년 양측에서 연합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가 1973년 2월 9일 부활절연합예배를 대한기독교 연합회(DCC)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안을 통과시키므로 오랜 숙원이던 부활절연합예배의 일원화가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부터 1994년까지 하나된 부활절연합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부활절연합예배에서는 교회일치와 민족통일을 향한 기도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남북 교회 부활절공동예배 추진을 위한 대표자 실무 접촉 회의는 1993년 3월 22일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하여 전달되었으며, 3월 30일과 4월 2일에는 기독교방송을 통해 전문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북한교회의 회신이 4월 5일 도착했다. 그

내용은 설교문, 기도문, 메시지 교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993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의 화합과 일치와 협력을 이루려는 연합행사가 되도록 기도했으며, 남과

북의 교회가 영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화통일 염원의 민족의 소명을 확인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의 특징임을 알게 하였다. 다시 1995년-2005년의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로 발전하면서 전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일치와 연대를 가지게 되었다. 해방 전후로부터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점을 교회가 분단 시기 속에서도 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고난을 함께 함은 그 시대 속에 살아있는 하나됨의 이유가 되기도 한 것이다.

### 부활절연합예배의 분열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

이상에서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로부터 정착한 복음의 확산은 그때그때마다 한국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현실 변혁의 역사였음을 알게 한다.

부활절연합예배는 교파 간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계기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성을 인식해야 한다. 부활절연합예배는 가장 많은 교파가 참여하는 한국교회 최대의 행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해방 전후로부터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점은 교회가 분단 시기 속에서도 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고난을 함께 함은 그 시대 속에 살아있는 하나됨의 이유가 되기도 한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선교 2세기를 지향하면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예배공동체를 통하여 민족구원을 위한 선교와 복음화 그리고 기독교문화 창출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민족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소명도 오늘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작금 한국교회는 이처럼 연합과 일치와 상징적 행사인 부활절연합예배마저도 분열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은 각 교파를 하나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자는 데 있다. 부활절연합예배마저 나누어 에큐메니칼 정신을 약화시켜서는 결코 안된다.

### 실망한 물가

### 예수님의 고난 (사53:1-6)



이요한 목사  
(축복의교회 담임)

본문은 ‘고난장’ 혹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 불립니다. Polycarp은 본문을 ‘구약성경 전도자의 황금의 대수난’이라 불렀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하며, 고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을 정확히 기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개인의 고난이 아니고, 온 인류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고난이요, 보통 인간의 고난이 아니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하셨습니다. 평범하고, 보통 분으로 오셨고, 섬기려하셨기에 비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셨으며, 이 땅 위에 오시자마자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했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고난당하셨고, 결박을 당하셨고, 심문을 당하셨고, 마침내 골고다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짐 뱀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렸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전 생애가 고난이셨습니다. 철저히 버림 받으신 바 되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진술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고통을 당했으며,

영적으로는 버림 받으셨습니다.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인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인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위해 당한 고난이셨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불순종과 죄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4)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질고는 영육간의 병이요, 인간은 누구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병과 슬픔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고와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고와 슬픔에서 해방을 얻을 길을 열어 주시게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짊어지는 우리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5-6)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을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사53:10-11). 하나님의 뜻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6)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직접 심판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온갖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악 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해방을 얻었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살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여 신령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 드립니다.

<lchms77@hanmail.net>

## “부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총 회 장



조경삼 목사  
경기노회  
삼애교회

부총회장



정학재 목사  
강릉노회  
영광교회

서 기



김송수 목사  
경기노회  
동석교회

부서기



김효현 목사  
강서노회  
새로운교회

회록서기



이종필 목사  
서울노회  
한비전교회

부회록서기



이진섭 목사  
중부노회  
범천제일교회

회 계



김영수 장로  
전남노회  
광주복음교회

부회계



박성웅 장로  
대구노회  
마가다락방교회

총 무



정혜송 목사  
서울노회  
성광교회

부총무



강석준 목사  
강서노회  
참다운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11 성보빌딩 5층 Tel. 02)2062-2700 Fax. 2062-0330



#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 캘리포니아 주정부 정식 인가... 예정합동보수 교단과 인준 협약 체결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인터넷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 한국 기독교계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는 대학원이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깊이 있는 신학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총장 김호식 박사, International Cyber Seminary, 이하 ICS)이 바로 그곳이다.

ICS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나 시간이 부족해 신학공부를 하지 못하는 전문인들에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이버신학대학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ICS의 학생 분포를 보면 기업의 최고경영자, 의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 인터넷 망을 활용한 강의를 진행하는 곳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ICS가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ICS의 가장 큰 장점을 들자면,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는 교수진을 꼽을 수 있다. ICS는 초교파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에게 강



사들도 교단의 구분 없이 수준 높은 학식을 가진 기독교계 최정상급의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총장 김호식박사(전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장을 필두로 정인찬교수(백석문화대학교 총장), 신성종교수(풀인 신학대학교 총장), 박성민교수(한국C.C.C 대표), 정성구교수(전 총신대학교 총장), 김은호교수(전 한국성서대학교 부총장), 이호우교수(전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장), 김선기교수(메트라원어연구소 소장) 등 전·현직 신대원 총장과 부총장 및 분야별로 탁월한 명성을 가진

진 분들이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교수진이 한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교단의 학풍을 배울 수 있고 특정 교단의 교리에 치우친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닌 폭넓고 다양한 시선으로 균형 잡힌 신학을 배울 수 있어 재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재 등록률도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높다.

ICS는 사이버 신학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해 학생들이 직접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며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 세미나 기간 중에는 학생들끼리 결속력을 다지는 활동도 진행해 사이버신학대학원이지만 학생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남다르다.

최근 ICS는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1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해 지난 22일에는 예정합동보수(총회장 조규일목사) 교단과 인준관계를 체결하기도 했다. ICS와 인준협약을 맺은 예정합동보수 총회장 조규일목사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포진해 있는 신학대학원과 인준관계를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교단이 ICS와 함께 성장해 한국기독교계에 큰 유익이 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혀 ICS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ICS의 명성이 알려지자 다양한 교단에서 인준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ICS는 학생들이 한곳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교단에 진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준관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CS는 선교 지역의 현지인을 교육해 제자화 하는 일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과 이스라엘, 탄자니아 같은 경우 한인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양육되면 ICS를 통해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게 해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인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ICS의 양질의 신학 콘텐츠가 결합해 현지인들을 제자화하고 동력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해 신학대학원의 새로운 리더로 올라서려는 ICS의 행보에 기독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승원기자>

**목회자칼럼**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김태일 목사  
전주서신중앙교회

이탈리아 아시스의 맨발의 성자 프란시스코의 노경시에 있었던 짝막한 일화이다. 어느날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당신은 별로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처럼 많은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을 기뻐 받으며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성을 올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깊고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천한 인간을 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있고 학식있는 소위 능력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실까? 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자 곧 강한 사람에게는 큰 일이 맡겨지고 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을 위해 보다 능력있고 강한 사람들을 선발함으로 힘이 없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오되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자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다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전 1:27-28).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조금만 남보다 능력이 있고 강하다고 하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무엇인가 일을 성취한 후에는 자신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놀라운 권능의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그들 대적하는 약한 자들을 잠잠케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결국 인간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에 따라 이루어 짐을 본다. 따라서 우리 약한 자들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같은 약한 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흑인 노예의 비참한 상황을 소설로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저자 스토 부인을 만났을 때 그의 왜소한 체구를 보고서 '스토 부인 반갑습니다!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나 저는 부인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평소엔 부인의 소설에 그려진 필치처럼 씩씩하고 힘찬 여성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체구였다가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시다니요' 링컨의 말에 미소짓고 있던 스토부인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그저야 당연하지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어디 제 소설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닮아 쓰신 거랍니다. 그렇기에 힘과 많은 교훈을 주는 소설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라고 대답했다. '앗! 그렇군요.' 링컨은 그 녀에게서 위대한 소설가로서의 면모 이면에 있는 위대한 신앙을 보았다

헬렌 켈러는 출생 8개월만에 뇌막염으로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교육과 구제 활동, 선교, 강연, 영화 출연, 저술 등에 진력했다. 존 밀턴은 소년 시절부터 시를 지은 시인으로 1651년 시력을 잃은 후 7년에 걸쳐 그 유명한 실낙원을 저술했다. 존 번연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겨우 성경을 읽는 것으로 문맹을 깨칠 정도였지만 후에 정식 목사가 되었고 왕정 복귀와 더불어 독립교회를 따른다는 죄목으로 12년간 옥중 생활 중 유명한 천로역정을 저술했다. 칼빈은 16세기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였고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다. 하지만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자 할 만큼 투병생활을 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기독교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이고 성경 13권의 기록자이며 가장 많이 활동한 선교사였지만 그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민중의 벗, 허병섭목사 소천**

민중의 벗, 교방동네 공복사로 잘 알려진 허병섭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향년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허목사는 1941년 10월 10일 경남 김해에서 출생, 한국신학대학을 마치고 박형규목사, 권호경목사, 이해학목사, 제정구선생 등과 더불어 정계천에서 빈민선교를 시작하였고 이후 1976년 서울 성북

구 하월곡4동에 동월교회를 설립하고 탁아소운동, 공부방운동의 효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빈민, 노동자와 함께 하는 민중교회 운동, 빈민운동,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1980년대에는 교회협 도시농어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빈민운동에 철저히 투신했다. 장례는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 한국 최초 발효효소기술사 교육안내

발효효소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음료, 가정조미료 등의 필수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매년 대기업(제약, 화장품, 식품 등)에서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국내에서 양질의 발효효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석학(대학교수진)들에 의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발효효소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	농어민, 농어촌지도자, 농어촌교회목회자, 귀농귀촌희망자, 농어촌봉사자, 식품업종사자, 요식업종사자, 취업희망자, 일반가정주부, 실버세대일자리제공, 사회복지지도자																																																										
일시	● 1기 : 04.07(토)-04.28(토) ● 2기 : 05.12(토)-06.02(토) ● 3기 : 06.09(토)-06.30(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4주간(상반기) 하반기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각 지회별 지방 교육은 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장소	협회교육장 :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교육 내용 및 강사진	<table border="1"> <tr> <th>강의주제</th> <th>강의내용</th> <th>강사</th> <th>비고</th> </tr> <tr> <td>1. 협회의 역할</td> <td>봉사, 인격, 사명</td> <td>김 윤 식</td> <td>운영총괄</td> </tr> <tr> <td>2. 발효효소의 개요</td> <td>조성, 물성, 차별화</td> <td>조 선 행</td> <td>효소(성분)</td> </tr> <tr> <td>3. 효소의 개념</td> <td>종류, 중요성, 활용</td> <td>강 주 섭</td> <td>"</td> </tr> <tr> <td>4. 약초의 재배</td> <td>독초, 약초, 안전성</td> <td>장 광 진</td> <td>"</td> </tr> <tr> <td>5. 효소의 분석</td> <td>생성성분, 표준화</td> <td>김 영 식</td> <td>"</td> </tr> <tr> <td>6. 발효효소와 창업전략</td> <td>형태, 홍보, 마케팅</td> <td>박 창 옥</td> <td>경영(수익)</td> </tr> <tr> <td>7. 발효효소와 미생물</td> <td>발효, 진행, 관리</td> <td>이 영 수</td> <td>효소(성분)</td> </tr> <tr> <td>8. 발효효소와 건강미인</td> <td>피부, 모발, 케어</td> <td>강 덕 순</td> <td>식품(건강)</td> </tr> <tr> <td>9. 산야초와 독성식물</td> <td>독초, 약초, 안전성</td> <td>임 순 성</td> <td>재료(생산)</td> </tr> <tr> <td>10. 발효효소와 귀농귀촌</td> <td>탐색, 여행, 정착</td> <td>김 경 중</td> <td>경영(수익)</td> </tr> <tr> <td>11. 발효효소의 표준화</td> <td>품종, 시간, 온도, 비율</td> <td>이 상 현</td> <td>재료(생산)</td> </tr> <tr> <td>12. 발효효소와 약용식물</td> <td>부위, 시기, 채취</td> <td>강 덕 봉</td> <td>재료(생산)</td> </tr> <tr> <td>13. 발효효소제조실습</td> <td>품종, 비율, 숙성</td> <td>주 양 애</td> <td>실습(제조)</td> </tr> </table>	강의주제	강의내용	강사	비고	1. 협회의 역할	봉사, 인격, 사명	김 윤 식	운영총괄	2. 발효효소의 개요	조성, 물성, 차별화	조 선 행	효소(성분)	3. 효소의 개념	종류, 중요성, 활용	강 주 섭	"	4. 약초의 재배	독초, 약초, 안전성	장 광 진	"	5. 효소의 분석	생성성분, 표준화	김 영 식	"	6. 발효효소와 창업전략	형태, 홍보, 마케팅	박 창 옥	경영(수익)	7. 발효효소와 미생물	발효, 진행, 관리	이 영 수	효소(성분)	8. 발효효소와 건강미인	피부, 모발, 케어	강 덕 순	식품(건강)	9. 산야초와 독성식물	독초, 약초, 안전성	임 순 성	재료(생산)	10. 발효효소와 귀농귀촌	탐색, 여행, 정착	김 경 중	경영(수익)	11. 발효효소의 표준화	품종, 시간, 온도, 비율	이 상 현	재료(생산)	12. 발효효소와 약용식물	부위, 시기, 채취	강 덕 봉	재료(생산)	13. 발효효소제조실습	품종, 비율, 숙성	주 양 애	실습(제조)	강사진은 효소관련 각 대학 교수진과 본 협회 전임교수진으로 구성 상기 시간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강의주제	강의내용	강사	비고																																																								
1. 협회의 역할	봉사, 인격, 사명	김 윤 식	운영총괄																																																								
2. 발효효소의 개요	조성, 물성, 차별화	조 선 행	효소(성분)																																																								
3. 효소의 개념	종류, 중요성, 활용	강 주 섭	"																																																								
4. 약초의 재배	독초, 약초, 안전성	장 광 진	"																																																								
5. 효소의 분석	생성성분, 표준화	김 영 식	"																																																								
6. 발효효소와 창업전략	형태, 홍보, 마케팅	박 창 옥	경영(수익)																																																								
7. 발효효소와 미생물	발효, 진행, 관리	이 영 수	효소(성분)																																																								
8. 발효효소와 건강미인	피부, 모발, 케어	강 덕 순	식품(건강)																																																								
9. 산야초와 독성식물	독초, 약초, 안전성	임 순 성	재료(생산)																																																								
10. 발효효소와 귀농귀촌	탐색, 여행, 정착	김 경 중	경영(수익)																																																								
11. 발효효소의 표준화	품종, 시간, 온도, 비율	이 상 현	재료(생산)																																																								
12. 발효효소와 약용식물	부위, 시기, 채취	강 덕 봉	재료(생산)																																																								
13. 발효효소제조실습	품종, 비율, 숙성	주 양 애	실습(제조)																																																								
혜택	1. 발효효소기술사자격증(협회발행) 취득, 2. 협회회원가입 및 수혜: 기술, 생산, 유통, 취업, 창업지도, 3. 개인별 창업가능, 4. 발효효소생산업체 취업가능, 5. 개인별 가내생산으로 수익창출 및 가계도움, 6. 해외진출 가능, 6. 귀농귀촌 최우수 프로젝트, 8.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8. 농어촌교회자립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기간 및 인원 : 매회 개강 1주전 마감 선착순 50명</li> <li>● 접 수 비 : 67만원(입회비, 교재비, 실습비, 연회비, 교육비 포함)</li> <li>●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904338(예금주: 사단법인한국발효효소협회)</li> <li>● 지 원 서 : 본 협회 홈페이지(www.koreapec.co.kr)에서 다운받아 작성</li> <li>● 접수방법 : 이메일(kimys0412@yahoo.co.kr)로만 접수</li> </ul>																																																										
참고	모든 문의는 이메일(kimys0412@yahoo.co.kr)로, 전화문의는 업무진행상 제한																																																										

(농업진흥청 허가119호)

## 사단법인 한국발효효소협회

회장 차기천 사무총장 김윤식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333-18  
전화 031-355-9989, www.koreapec.co.kr    kimys0412@yahoo.co.kr

■ 학술/ 학교폭력,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 교회가 지역의 방치된 아이들 돌보고 책임져야

본고는 지난달 24일 사랑의교회 정감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회 대책 심포지엄'에서 정병오대표(좋은교사 운동)가 발제한 원고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정병오 대표 (좋은교사 운동)

최근 연이은 집단 따돌림과 폭행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고 있다. 폭력의 가해자가 대다수 학생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폭력과 따돌림의 유형도 다양해졌으며, 폭력의 강도도 훨씬 더 심해졌다는 데도 심각성이 있다. 이전에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의 피해자였던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해졌고,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다른 친구를 따돌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모와의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불안정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왕따나 폭력 문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학교 안에서 옛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무질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체벌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던 권위주의적 전통과 질서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교육정책 당국으로부터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질서가 제시되지 않는 무책임하고 답답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비분필적인 것으로 바쁘게 돌리는 관료적 학교 구조, 교사들의 사명 의식 약화, 제대로 된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부모들을 내모는 사회구조와 물질만능 가치관, 그리고 핵가

마져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엄벌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예방과 치유, 회복의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의지와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 일반에서의 협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각자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과 교회의 대응

우선 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지금과 같이 어찌하든지 돈을 벌어서 아이 학원비를 대고 이를 통해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 4. 학교와 기독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응보적 정의나 중벌주의를 버리고 회복적 정의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폭력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두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그 폭력을 지켜봤던 친구들을 함께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서 피해학생이 폭력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러웠는지를 말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를 목격한 친구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의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자신의 폭력이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는지,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지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가족,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그 모든 사람의 목격 가운데서 실천하게 해야 한다.

### 5. 우리 사회의 근본을 돌아보고 돌이킬 때

끝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성직에 의한 한 줄 세우기 방식의 무한 경쟁 교육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승자독식체제를 바꾸기 위한 합의를 해 가야 한다. 직업간 임금 격차 해소와 복지체제 확충을 통해 젊은 이들이 어떤 길로 나가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다른 아이와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기쁘게 협력해갈 수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단지 학교와 교육의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가치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문제다. 지금까지 이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된다는 한 가지 가치를 붙들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서로를 향한 폭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하나의 사회 문제로 치부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을 돌아보고, 작은 일상부터 큰 구조에 이르기까지 근본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근본을 바꾸는 일에 함께 나서고, 이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순간적인 분노만으로 그친다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비인간적인 폭력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국가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 지원 감독하고

## 기독교사들은 회복적 정의 확립 위한 노력해야

폭과 자녀수 감소로 인한 가정의 사회적 기능 약화, 개인과 사이버 문화의 영향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 약화 등이 함께 작용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 2.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책이 갖는 한계

학교폭력의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이고 지금 드러나는 학교폭력의 문제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 사회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외침을 외면하고 교과부와 정부를 향해서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다. 물론 정부가 한 달 반 정도를 준비해서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물론이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책임을 강하게 물겠다는 엄벌주의만 담겼을 뿐이다. 가해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자란 우리의 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교육적인 고민들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니 최소한 정부가 지나치게 교육을 성직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위주로 몰아부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하는데 이 반성

보내면서 가치관 형성을 돕는데 우선적인 시간을 쏟아야 한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아이가 믿음 위에서 성경적 가치를 형성해가며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찾아가는 일보다는 학업 성적에만 관심을 갖고 가족들이 다 모여 예배할 시간이나 함께 이야기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 가운데서 정상적인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은 전국의 모든 교회가 공부방 혹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그 지역의 방치된 아이들을 흡수하는 것이다. 교회가 재정과 인력을 여기에 투자하되, 국가는 교회가 운영하는 이 기관들에 대해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큰 틀에서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지역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질 뿐 아니라 교회의 훈련된 인적자원을 학교에 자원담당가와 갈등조정자로 파송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미 마을과 지역사회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우리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마을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함을 통해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 영성논단



주홍근 목사 (성령사관학교)

##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통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 10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 가정에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율법서가 날마다 읽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모세 법은 그 민족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서 완성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경전으로 읽혀지고, 그 가르침들은 매일 매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되었고, 진리이고 생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 절차로 가르치는 사람에게서조차 지켜지지 못했고, 즐겁게 배워지는 진리가 되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도 십계명의 핵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껏해야 우회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에 지켜지던 제의 법이나 지키는 정도였다. 더욱이 사람들이 성전에 접근함에 있어서 타부 시 되는 것들에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저마다 정죄하였다. 제사에 참여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저들이 성전에서는 얼마나 경건하였는지는 몰라도, 램브란트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묵상하며 그려낸 그림들을 볼 것 같으면 누구라도 금세 화폭에 담긴 그 인간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성경에서 지적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종교인들은 저마다 가뭄이 되고 병들어 있었던 것이다.

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카산드라의 예언은 무시되어졌고, 거짓 승리의 환영에 취한 트로이 군대는 목마를 들여 놓고 잔치를 벌인 것이었다. 그날 밤 어둠이 깊게 드리웠을 때에 그 왕국은 주검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다. 카산드라는 길이 되었고, 진리이고 생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 절차로 가르치는 사람에게서조차 지켜지지 못했고, 즐겁게 배워지는 진리가 되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도 십계명의 핵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껏해야 우회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에 지켜지던 제의 법이나 지키는 정도였다. 더욱이 사람들이 성전에 접근함에 있어서 타부 시 되는 것들에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저마다 정죄하였다. 제사에 참여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저들이 성전에서는 얼마나 경건하였는지는 몰라도, 램브란트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묵상하며 그려낸 그림들을 볼 것 같으면 누구라도 금세 화폭에 담긴 그 인간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성경에서 지적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종교인들은 저마다 가뭄이 되고 병들어 있었던 것이다.

누구든지 한국이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회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통계학자가 아니라도 요즈음 방송매체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그만한 돈들이 단시일에 쏟아져 나왔는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세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나오는 있지만, 그러한 건물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퇴락한 수도원이나 유럽의 교회들을 보았는가? 순식간에 빠져 버리고는 온데간데없어 사람들의 자취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30세 조금 더된 예수가 헤롯이 건축한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고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굳이 예레미야가 아니라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놈의 소굴로 만들었느냐'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지혜 자가 문기를 '너희가 여기에 들어 올 때에 성문에서 지혜가 소리치지 아니하더냐?' '들들도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었다.

저들이 소리치는 예언이 먹혀들지 않고, 날마다 가르치는 가르침이 백성들에게서 실천이 되지 않을 때까지, 서기관들의 법복을 길게 드리고, 예전을 멋있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예수 같은 젊은이들은 감동하지 않았다. 사 복음서를 눈을 찡그려 살피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저들의 예전에 함께 춤을 추어 있었더라... 성령은 법계를 떠나 성전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졌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경배는 거리에서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드려졌던 것이다. 감동과 경이로움과 기쁨과 회개가 거리로 나온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스피커들은 예언자 카산드라처럼 되어져 버렸다. 카산드라는 트로이 군에게 도성을 든든히 지키고 그리스 군이 세워놓은 목마를 도시 안

사순절 기간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폭력적이고도 무자비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었다. '내가 땅에서 들리던 나의 백성들은 위로 이끌리라' 하시며,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끌리지를 앉으시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셨다.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던 세세 주던 요한을 보고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굳이 예레미야가 아니라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놈의 소굴로 만들었느냐'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지혜 자가 문기를 '너희가 여기에 들어 올 때에 성문에서 지혜가 소리치지 아니하더냐?' '들들도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었다.

##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상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줄을 앎이로라(롬 6: 9)

대한예수교장로회

### 든든한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  
(벧후1:4)

담임 장향희 목사  
외 교우일동

인터넷설교 : www.ddhc.net

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Tel. (교회) 031-977-8383~9, 977-0234~8  
FAX 977-8382

한국기독교장로회

### 동부교회

담임 강경신 목사  
외 교우일동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6-16  
Tel. 02-568-2781 Fax. 02-563-2967

대한예수교장로회

### 선목교회

담임 문재용 목사  
외 교우일동

133-100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5-1  
Tel. 070-8818-2561, Fax. 2297-2561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조갑순 목사

부총회장 손문석 목사, 이여백 목사  
서기 권오장 목사  
부서기 한기용 목사  
회록서기 김윤익 목사  
부회록서기 함두만 목사, 기노성 목사  
회계 이덕희 목사  
부회계 황순옥 목사  
감사 이선옥 목사, 정애순 목사, 이종득 목사, 안성봉 목사  
총무 이승진 목사  
부총무 강효심 목사, 강정식 목사

412-8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67-8  
Tel. (031)964-2782 Fax. (031)969-2785



# 진흥문화 '믿음으로 걸어온 37년'의 역사

## 캘린더로 시작 문화사업 전반으로 확장...오는 5월 기독교역사자료관 개관

최소한 직원은커녕 그럴듯한 사무실도 없이, 남의 사무실 구석에서 덩그러니 놓여진 책상 하나에서 모든 역사는 시작됐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상주하는 직원만 100명에 이르는 믿음의 기업진흥문화(회장 박경진장로)는 지금의 엄청난 성공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너무도 초라한 시작을 보았다.

지금의 진흥문화를 창립한 회장 박경진장로는 어렸을 적부터 지지도도 가난했던 탓에 짧은 시절 온갖 갖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함을 몸에 익혔다. 그렇게 차분히 때를 기다린 1976년 어느 날 박장로는 직원 1명을 데리고 진흥문화를 시작했다.

사실 박장로가 처음 시작한 진흥은 너무도 열악한 생활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수단이었다. 그런데 박장로가 어느 날 돌아본 진흥은 기독교인인 본인에게 너무도 큰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게 최우선이었으니까, 진흥도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었지,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 아 내가 하는 일이 선교사역이고, 복음사역이고, 문화사역이구나란 생각이 드는거야"

이렇게 세워진 기업인 아래 진흥은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갖춘다. 처음에 시작한 캘린더사업이 한순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한때,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할 만큼 성장했다. 당시 가장 많이 판매될 때는 1년 판매량이 630만부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팬시, 온라인 판매, 음반, 여행 등으로 확장한 사업도 성공을 거두며, 지금의



진흥이 갖춰졌다.

### IMF도 꺾지 못한 진흥의 믿음

승승장구하던 진흥이었지만, 전 국토를 뒤덮은 97년의 IMF는 진흥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많은 회사들은 부도만은 피하려 인건비를 줄이고자 인원 감축에 혈안이 됐다. 하지만 진흥은 IMF 당시에 도 단 한명의 직원도 내치지 않았다. 오히려 회장인 박장로가 개인 자동차를 팔아가면서까지 직원들 상여금을 챙겨줬다. IMF 당시 박장로는 지하철로 회사를 출퇴근 했었다.

박장로의 이런 마음은 직원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당시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문을 보면 "우리를 월급 30%를 떼어서 회사 자금으로 쓰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주세요" "지금은 일단 우리의 회사 진

흥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월급 20%씩 삭감해 주세요" 등의 눈물어린 호소들이 눈에 띈다.

그렇게 박장로 이하 모든 직원들이 똘똘 뭉친 결과 IMF의 위기에 진흥은 1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위기를 넘겨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더욱 신실한 믿음과 감사로 진흥 가족은 더욱 돈독한 유대를 갖게 됐다.

지금도 진흥은 매주 월요일 아침 전 직원이 모여 전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매일 오전 직원들은 일과를 시작하기 전 그룹별로 모여 큐티를 진행한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일에 임하는 만큼 믿음생활도 열심이다.

"설교만 하는 것이 목회고, 전도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진흥 가족들은 모두가 문화선교자라는 사명으로 매일을

감당하고 있어. 그게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말야"

### 박경진회장 '제2의 사역' 시작

박장로에게 있어 기독교 기업 진흥 사업이 제1의 사역이었다면, 제2의 사역은 봉사과 헌신이다. 현재 박장로는 선교사 지원, 해외 입양아 한국방문 등의 지원 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장학재단까지 설립해 교육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장학재단은 박장로가 순수 자비로 출현해 2회째 진행해오며 지금까지 약 70명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왔다. 장학사업을 자비로 진행하다 보니 결국 운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내온 "이 장학금을 돈이라기보다는 뜨거운 눈물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가슴에 간직하겠다"는 편지들을 볼 때면, 더욱 힘을 내게 된다.

더구나 오는 5월에는 진흥아트홀 내 역사자료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 역사자료관 역시 박장로가 순수한 자비를 들여 꾸렸다. 이 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전해온 서상훈과 이수정의 삶을 재조명한다. 그리고 국내 기독교 유적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전 세계 성지순례 정보와 코스를 설명하고 있다.

박장로는 "한국 복음의 시작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므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더 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무료로 개방될 이 곳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진태기자)

## 3월의 성탄송(聖誕頌)

박정규 목사  
(대전대학교·한국교회사 교수)

살을 애이는 듯한 겨울 칼바람도 그 기세를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저만치 물러가고 있다. 2011년 성탄절을 보낸 지도 여든 3개월이 다 지나가고 곧 춘삼월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 보노라니 파아란 하늘에 흰구름 조각이 흘러간다. 갑자기 12년 전 3월 초에 회갑을 맞이하여 축하한다고 아들 3형제가 힘을 모아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클로즈업되어 왔다.

정확하게는 2000년 3월 10일부터 10박 11일 여정으로 대한항공 편으로 밤새껏 날아 첫 기항지인 이집트 수도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꿈꾸어오던 2천년 전에 태어나고 활동하셨던 성지(聖地)에 도착해 이집트에서 예수님의 피난교회회를 비롯 애굽문화의 상징적인 피라미드와 헤라클 수 없는 많은 유물과 미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을 비롯, 모세가 어릴 때 떠내려 갈 뻔했던 나일강 위에서 밤빛을 체험하느라 며칠을 보내고 시내반도로 가서 시내산 등정을 한후 홍해를 건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했다.

하루 종일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밤 12시가 되어서 수도 예루살렘 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쉬고 예루살렘 근교의 성지순례에 나섰다. 여러고와 마사다, 사해와 쿠파르돌굴을 비롯 나사렛을 거쳐 예수님의 첫 이적 행하신 가나를 순례하고 갈릴리 지방에 들려 뜻깊은 선상예배를 드리며 큰 감동을 받았다.

선수가 코리아 순례객들이라며 배한 가운데 태극기를 게양해 우리 일행들을 감격케 하였다. 선상예배에서는 필자가 사회를 보았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숨겨 깊도다' (찬송가478)를 함께 불렀는데 고국에서 야외예배 때 종종 불렀던 감동과는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가슴 깊이 와 닿는 감격으로 다가왔던 흥분을 지금도 아련히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듯 하다.

갈릴리 해변가의 호텔에서 1박을 한 후 다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순례에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그리멀지 않은 (약12km)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 당도한 시간은 정오가 거의 다 되었을 즈음이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듯이 그날 따라 세계 여러나라들로부터 물려온 순례객들로 북적거렸다. 함께 동행한 가이드로부터 순례지에서 주의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전해받아서 베들레헴

성전 건물 안으로 순례객의 대열에 끼여 겹손의 문으로 알려진 입구문을 통과해 들어가니 생각보다는 꽤 넓은 공간이 나왔다. 성전 안에서 안내하는 듯한 아래윗 검은 양복차림에 검은 종절모를 쓴 남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한 장 찍고 일행을 따라 지하성당 공간을 향하여 계단을 내려갔다.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당도한 순례객들을 보니 대부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고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 아시아 정교회 신도들이 이곳 저곳에 마련된 탁자 위에 촛불을 밝혀 놓고 미사에 여념이 없었다. 그 복잡하고 분주한 여정 가운데서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들은 기념촬영한 곳이면 어김없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촛대에 불타면 미사가 가능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함께 간 우리 일행들을 향하여 "이리로 모두 모이세요" 하고선 대열을 원형으로 하고 손을 손을 마주잡고 "다같이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하였던니 약속이나 한듯 함께 큰소리로 신앙고백을 하고 필자가 신앙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보고선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자고 하고서 함께 성탄절 때 부르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불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라고 함께 불렀다.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 일행을 바라보니 모두가 감격해 하며 두 눈에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찬송이 끝나자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주님 2000년만에 이 자리에 당도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주님의 향취가 그득한 이곳 베들레헴성전까지 치차 아오게끔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과 교육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간단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 예배는 내 평생동안 있을 수 없는 뜻깊은 예배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던 베들레헴교회 예배였는데, 늘 12월에만 불려왔던 성탄송이 3월에 이르러 성지에서 불려도 똑같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감격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잔잔한 감동으로 간직하고 있음은 성지순례로 얻은 특별한 은총으로 기억하고 있다. <2012.3.1>

## "북한동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북한을 위한 기도 시간 이어져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도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애국코리아연합(대표회장 김세영목사)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애국코리아 통일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피종진목사(남서울중앙교회), 김충환의원(세누리당)이 참여해 탈북자들을 향해 참석자들이 뜻을 모아 기도할 것을 당부했고 탈북자출신 강철호목사(새터교회)와 탈북자 박문희집사는 북한의 끔찍한 실상을 고발하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로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충중목사(대한민국 새시대 새사랑 연합총재)는 '비상시국의 진단과 대책'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이 붕괴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베트남 적화통일을 답습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성토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역사관, 안보관,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전선전술에 적극 대처하며 보안법 적용을 엄정하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강을 진행한 강철호목사는 북한에 비해 월등히 살기 좋은 환경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감사 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는 것을 답답해하며 이 순간 굶주림과 필박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왜 탈북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북에 두고 있는 가족들의 걱정에 매일 밤을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들의 상처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유성현목사(하야방송 이사장)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참석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도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승원기자)

**부활의 기쁨을 장기기증으로!**

You have the power to donate life!

하나님께 심일조를 드리듯이 예배 중에 내 몸의 일부를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평생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 하늘나라로 불리갈 때 각막을 기증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장기기증예배 관련 문의**

주일 대·여배시간에 설교 강사로 초청해 주시면 그거린 C 웃사랑의 실천을 경험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사랑교회팀 02-363-2172]

**웃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www.donor.or.kr ☎1588-1599

## 축 「인준협약」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ICS) 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A) 교단이  
안수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2012년 3월 22일  
"인준협약"을 맺었음을 공지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국 제 사 이 버 신 학 대 학 원 총 장 김호식 목사**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합 동 보 수 A) 총 회 장 조규일 목사**

■ 특별기고 / 고유한 특권에 관한 소고

# 총회는 목사와 장로의 원치리권이 없다



박병진 목사  
(춘성명예교수 교회학범)

장로회 정치에서의 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처리회는 모두 그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게 되니, 바꾸어 말하면 당회도 목사와 장로의 회요, 노회도 대회나 총회도 모조리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의 회이니 결국 각급처리회는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다.

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총회재판회나 재판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할 같이, 대회나 노회 재판회나 재판국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고, 당회재판도 역시 같은 이름으로 판결하니 말이다(예 제16장).

**고유한 특권과 3심제도**

그리고 장로회정치에서의 처리회는 처리회에만 있게 하되, 어느 한 처리회에 다 맡긴 것이 아니고, 각급 처리회에 나누어 맡기며, 각각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고유한 특권이란 이처럼 부여된 처리권이 그 처리회에만 있고, 다른 처리회에는 없으며 또는 처리권이 없다고 타에게 위탁하고 처리권이 없는 처리회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지 못하며, 혹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박탈

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에서 이를 고유한 특권이라고 한다.

즉 교인을 다스리는 처리권은 오직 그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대등한 다른 지교회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 대회, 총회도 우리교회 교인을 맡길 하나도 건드릴 권이 없으며, 또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릴 권세와 경내의 소속목사를 다스릴 처리권은 오직 소속노회에만 있게 하였으니, 당회는 물론이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과 상회인 대회나 총회도 우리교회나 우리 목사를 직접 맡길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각급 처리회의 구성요원이 비록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든

## 각급 처리회에 소속회원들의 기소권은 있어도 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에서 재판해야 한다

지 인간적인 약점과 제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결국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시인할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도록 한 것이 3심제도이다.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

우리교회 교인을 노회가 시벌했다고 하면 순복해야 하겠는가?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처리하는 권세)이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노회가 교인을 직접 시벌했다면 원권(직접 처리하는 권세)이 없는 총회도 순복해야 하겠는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총회가 목사를 직접 시벌했

다면 원권(직접 처리하는 권세)이 없는 자의 권리행 사인즉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은 당회에만 있고,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요, 대회와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아무런 사건이든지 직접처결할 권이 없고,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통합측·기장측은 20일 이내) 상소나 소원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교인관계 사건과 목사관계 사건을 다룰 수가 있게 되고, 상소나 소원기일이 경과하면 확정이니, 그 처결이 당회의 처결이라고 해도 전국교회의 결정이 되고, 노회의 처결이라고 해도 역시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고려: 정 제

10장 제76조 4, 기장: 정 제8장 제42조 2, 보수: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 합신: 정 제14장 제1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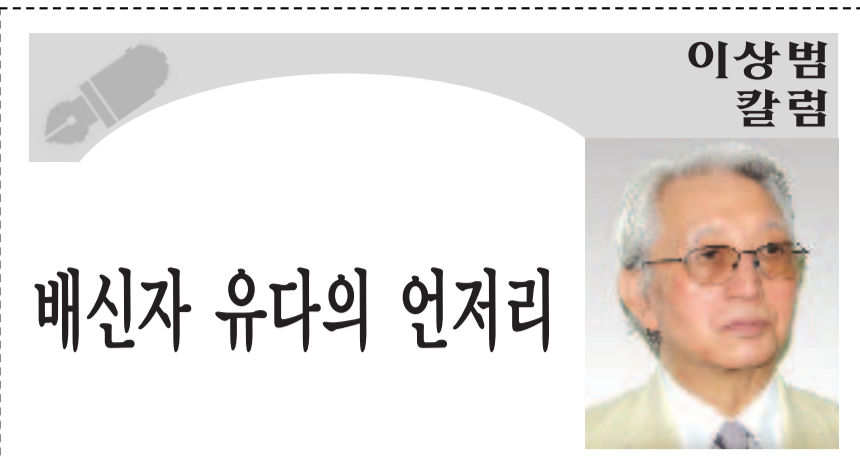
흔히 잘못 생각하는대로 고유한 특권 때문에 지교회 장로는 노회가 다스릴 수 없으며 그가 노회총대나 총회총대가 되었으면 노회도 총회도 다스릴 수가 있고, 목사를 대회나 총회가 다스릴 수 없으나, 그가 대회나 총회총대가 되었으면 대회나 총회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장로가 노회총대가 되면 교적(敎籍)이 노회로 옮겨지는가? 목사가 총회총대가 되면 교적이 총회로 옮겨지는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고 하였는데, 노회

가 어떻게 장로를 직접 처결하고, 총회가 어떻게 목사를 직접 처결하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권 제2장 제7조 단서에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규정도 원칙적으로는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있는 당회나,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있는 노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당회나 소속 노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려니와, 조문이 원고로 기소할 수 있는 자를 당회나 노회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처리회(즉 당회, 노회, 대회 혹은 총회)의 통칭이라고 하였으니, 처리회가 다 소속회원의 권징이 필요할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한 규정으로 보아, 노회총대가 된 장로를 노회가 기소할 수 있고 총회총대가 된 목사와 장로를 총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는 있어도, 재판은 마땅히 소속 처리회에서 행함이 옳다고 하는 말이다(이는 A노회의 목사를 A노회 소속 회원들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B노회나 C노회 회원도 원고로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피고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는 것과도 방불하다).

끝으로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총회가 어떤 의미에서 최고 처리회가 되는냐는 물음에 "총회가 최고처리회가 되는 것은 상소 사건의 최고심이요, 또한 최종심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회의 재판사건이 상소에 의해 차례로 노회와 대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노회와 헌법쟁쟁사건은 총회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상고건에 대한 총회의 처결은 전체교회의 결정이요, 후총회에서 이같은 전총회의 처결을 취소하지 못한다(Presbyterian Digest, p.533) 하였으니, 바로 역사화 되니 최고회일수록 법을 지켜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 배신자 유다의 언저리

사도행전이 베드로의 입을 빌어 배신자 유다를 비난하는 대목은 복음서의 것에 비해 훨씬 원색적이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삶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유다의 자리를 매우기 위한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베드로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유다의 그림자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다.

C. G. 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끼치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의식은 자아의 어두운 면인 '그림자'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림자'를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자신의 그림자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창조해낸 스테프자코프와 예수를 배신한 유다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니 도스토예프스키는 유다를 의식해서 스테프자코프라는 인물을 그렸다. 스테프자코프는 카라마조프가의 하인이지만, 음탕하고 욕심 많은 포르트가 백지 여인 리자베타에게서 낳은 사생아. 그러니까 아버지 포르트가 낳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는 음탕하고 교활해서 무식한 척은 하지만, 사악한 일에서 들어나는 그의 지능은 형제들 중 가장 유식한 이반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그러나 금전문제에 대해서만은 그의 주인이자 아버이기도 한 포르트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 작가는 스테프자코프의 행적을 유다에게서 찾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신임을 배신해서 그를 신임해 주는 아버지이자 주인인 포르트를 살해했다. 훗날 돈 3천 루브르도 유다가 예수를 팔아 얻은 은전 30냥을 암시하는 자료일 뿐이다. 스테프자코프는 나중에 그 돈을 이반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데, 율행인 유다는 은전 30을 성전에 던져버린다. 유다도 목을 매고, 스테프자코프도 목을 매다.

작자는 스테프자코프로 하여금 이반에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태안에서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련을 받는 욕이 한탄하는 소리와 더불어, 예수가 유다를 가리켜 한 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자를 위해 좋았을 것"을 빌려 쓴 것이다.

유다가 열 두 사도 가운데서 '검은 양'이었던 것처럼, 스테프자코프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검은 양'이었고, 아버지이자 주인인 포르트를 죽인 스테프자코프는 곧 하나님을 죽인 악마로 그려나간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전반에서 스테프자코프가 정신적으로 이반에게 종속된다. 그러므로 스테프자코프에게 이반의 열등한 인격이 투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반이 스테프자코프를 천시하고 혐오하는 것은 천한 종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마이너스 측면의 분신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세 그리스도교회가 지나치리 만큼 유다를 미워하고 이지메를 가한 것은 자신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있는 유다의 마이너스 측면, 즉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일부가 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스페르자코프는 이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를 따르고 그에게 친숙하게 다가선다. 그것은 배가 다르긴 하지만, 형제인 이반에게서 자신과 상통하는 자질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아버지를 죽이는 공범자가 된다. 이반은 자신의 인격의 일그러진 부분을 통해서 침입해 오는 분신의 악마성을 어찌지 못하는 것이다.

이반에게는 악마를 불러내는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던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잘난 자존심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유다는 모두 스승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져 용서를 구했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 다르다. 이반은 베드로만큼 겸손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없으면서도 그를 부인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는 또한 악마를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부인할 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는 유다의 길을 따른다.



# 세계박, '세계성경유물박람회' 개최

## 광주시립민속박물관서 5월말까지 열려

교육청, 기독교 단체 등이 후원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물건들은 세계기독교박물관이 지난 27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세계에서 수집한 성서사물 1만 3천점 중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물건 800여점을 엄선한 것이다. 오래 된 물건으로는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등잔이나 종족시대의 황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 시대에 실제 사용되었던 데나리온, 유골함, 못, 바늘, 거울, 발짚는 대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만나를 담은 오멜이나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접대할 때 고운 가루를 담았던 스야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2천년 전의 두 램뎀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크게 보강하였고, 전시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진들도 대량 추가되었다. 예를들면 중국의 감람열매 사진이나 게셀의 주상(柱狀) 사진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를 맡은 김종식관장은 "과거 전시회에서는 물건들을 직접 보여 주는데 의미를 두었다면, 이번 전시회는 성

사회를 위한 복음 전파와 은혜받는 전시회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전했다. 이 일을 위하여 잘 훈련된 해설가 10명이 대기하였다가 80분에 걸쳐 직접 설명도 해 주게 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물매 던지기, 내 키는 몇 굵잇일까?, 나드 향기 맡아보기 등의 체험 코너가 마련돼 있고 기념품 코너에서는 일곱 촛대, 가시관, 메주자, 겨자지 등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세미나 또는 성경 공부차 방문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미나실을 마련하였고, 민속박물관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 5월 30일까지 무휴로 개관하며, 개관 시간은 10:00~19:00이다. 단 주일에는 13:30부터 개관하며, 관람료는 성인 10,000원(20명 이상 단체 8,000원), 학생(고등학교 이하) 7,000원(단체 5,000원)이다.

(문의 062-959-0006)

### 교회 후임자

위치: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환경: 4천 세대 입주 중인 정문앞, 양복 8차선 대로변 상가타운 중 5층의 5층.  
지난 10월 분양(120평)받아 최고급 인테리어.  
조건: 5억8천(대출 2억4천 포함, 이율6.0% 모든 성물 포함)  
사유: 선교지로 갑니다.

**연락 010-4261-9279**

### 종각·종탑·십자가·LED십자가·LED간판

2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안전시공 전문업체

십자가 네온 빛은 고정으로 고인하고 계신 교회는 바로 전야주십시오

- LED 십자가 제작설치
- 최첨단 LED내온설치
- 자체개발 다양한 모델
- 시공 후 철저한 A/S보장
-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공
- 전국 출장 환영
- 한번맞은 인연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본사전화: 02-803-3624~5 H.P: 011-337-5254  
경기점: 031-444-4350 H.P: 010-2087-5470  
영호남: 055-962-0794 H.P: 010-9299-0279

### 임대 안내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9호 교회연합신문 3층
- 평 수: 실평수 25평 (내부 인테리어 시설 완비)
- 임대료: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대 상: 기독교 기관에 한함
- 연락처: 010-2275-4075 정실장

### 교회연합신문

믿음직한 신문, 정확한 광고!

### 광고문의

광고는 화요일 오후 2시까지 마감합니다

TEL 02-747-1491  
FAX 02-747-1498

네이버 검색창에 NAVER [승리기업] 을 쳐보세요

### 종탑의 명가 승리기업

이성표 (팔복교회 집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1064-24호 1층  
홈페이지: www.sungli21.co.kr

### 해외 교민들에게 보낼 한복을 수집합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에게 보낼 한복을 수집합니다. 입지않고 장롱 속에 묵혀둔 한복이나, 더이상 입지 않을 한복, 또는 창고에 묵혀둔 새 한복 등을 보내 주시면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고려인 사회에 전달코자 합니다.

연락처: 02-744-1236, 010-6342-0282

### 교회연합신문

# 아름다운 기적이 전하는 주님의 사랑

## 사순절 맞아 2곳에서 장기기증 서약 예배드려

지난 25일, 전국 2곳의 교회에서는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동교회(담임목사 이봉인)에서는 교회 설립 89주년을 기념하여 사랑의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렸다. 주일 2, 3, 4부 예배에 본부 박진탁 목사를 초청해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개포동교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되어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주일을 지냈다.

예배에 초청된 본부 박진탁 목사는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솔선수범으로 이웃사랑에 앞장서야 할 때다"며 "그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자"고 장기기증 서약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몸소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감동을 더했다. 특히 개포동교회의 이봉인목사는 "개포동교회 설립 89

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특별히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장기기증서약과 같이 고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개포동교회의 성도들 중 407명의 성도들이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하며 생명나눔의 기쁨을 나눴다.

같은 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청원교회(담임목사 한정중)에서도 장기기증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청원교회의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11시 예배에 사랑의장기기증 총복지부 황성현국장을 초청해 장기기증 서약을 진행한 청원교회는 47명의 성도들이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정중목사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만큼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뜻을 모읍시다"라며 장



기기기증 서약을 독려하기도 했다.

박진탁 목사는 "교회가 사순절을 맞아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운동에 앞장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

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랑을 기억하고 장기기증 운동사역에 더 많은 한국 교회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363-2172)

### 선교칼럼

## 심슨의 선교적 동기

조 귀삼 교수 / 한세대 선교학



화란 자유대학의 선교학자인 베르카 일은 순수한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첫째 '순종의 동기(The motive of obedience)', 둘째는 '사랑과 자비와 동정(The motives of love, mercy and pity)', 셋째는 '영광의 동기(The motive of doxology)', 넷째는 '종말론적인 동기(The eschatological motive)', 다섯째는 '화급을 다루는 동기(The motive of haste)',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유익의 동기(The personal motive)'이다.

심슨의 선교적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그의 첫 번째 동기는 어린 시절 선교사들과의 만남과 선교적 서적들을 통해서 선교의 동인을 경험하였고, 두 번째는 어느날 꿈속에서 바라본 중국인들의 부름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마게도니아 환상이 그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가 부르는 선교적 메시지를 통해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심슨의 세 가지 동기 중에서 은혜가 되는 두 번째 동기인 마게도니아의 부름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 두 번째 목회를 담당한 미국의 루이즈빌에서 목회할 때는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좋지 못한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1878년 육신의 건강 회복과 영적 충전을 위해서 워킨스 그린(Watkin's Glen)에서 개최되었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군중들 속에서 선교사들의 강한 도전을 받고, 그의 마음과 영혼은 긴 선교에의 여정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곳의 수련회는 심슨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와 같은 그의 경험을 1894년 8월에 행한 그의 설교인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을 통해서 당시의 수련회가 얼마나 그에게 크나큰 비전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결코 18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밤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려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은 흥분할 수 없는 꿈으로 불타기 시작하였습니. 거대한 체육관의 강단에 앉아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단의 군중들 가운데 중국인 인듯한 사람들의 무리도 볼 수 있었습니. 그들 중국인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두 손을 꼭 짚고 무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중국 땅을 선교지로 생각지 않았고, 중국말도 할 수 없었고, 이방 땅인 그곳을 섬길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본 순간 내 마음은 그들을 복음화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깨어났고,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대담하기를,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 이후에 심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의 선교사로 보내기를 기도하며 선교에의 길을 찾았으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다양한 번민 속에서 심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결심을 담은 글로 써서 보냈다. 그러나 심슨의 이러한 열망과는 달리 그의 아내는 아직도 선교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녀의 마음은 지극히 여성적인 마음인 지도 모른다. 결국 심슨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환경을 회상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난을 각오한 헌신자의 마음이 준비되어있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를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정당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곳 중국 땅에 홀로 가시고, 나는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돌보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의 이러한 편지는 잠시 동안 그를 불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슨은 비록 그가 원했던 중국 땅을 향해서 떠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광활한 중국 땅 대신에 세계의 심장 부와도 같은 뉴욕으로 그를 인도 하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신 특별한 뜻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심슨은 뉴욕을 통해서 자신이 한곳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것 보다 몇 갈피나 많은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세계에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경험했던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해 본다.

www.worldcan.co.kr

# 영적각성과 교회부흥 실현하는 성령축제

## 5월초 열리는 '아버지의 축복성회' 사전 접수 실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윤리회복, 목회자, 성도들을 치유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 을 통해 교회 부흥 실현을 위한 성령축제가 열린다.

오는 5월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중앙성결교회와 남대전교회에서는 세계적인 성령사역자인 존 아놀트목사와 체안목사, 김바울목사(사진)를 강사로 초청해 영적으로 갈급한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를 위해 '아버지의 축복성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성회에서는 가슴에서 차오르는 성령의 강물로 인격의 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성회는 성령의 기름부으심, 교회 부흥, 치유 등의 은사를 직접적으로 보이며 7대 영역(종교, 교육, 축전, 미디어, 정부, 경제, 가정)에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날에는 캐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크리스천 펠로십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전인 치유의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하고자 한다.



김바울목사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 "목회자나 성도는 누구나 거룩한 삶을 갈망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며 "이번 집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

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목사 역시 자신의 목회에 대한 회의로 방향하던 1995년 어느 날 동아닷컴목사의 집회에서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통해 자신의 향후 목회방향을 설정했다. 김목사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한국교회 모두와 나누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성회의 강사로 참여하는 존 아놀트목사는 캐나다 펠로십(구공향교회)교회를 담임하였으며 수 년동안 전 세계 수 만명의 목회자의 사명을 새롭게 깨운 목사로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성회의 일정은 5월 3일 ~5일 서울중앙성결교회, 5월 7일~10일 남대전교회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저녁 7시 30분 하루 세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성회 참석은 사전접수 시, 또는 5인 이상 단체 접수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2-564-6817, 010-3099-8375) (차진태기자)

### 뉴욕 이슬람계, '무함마드 생일도 국가 공휴일로' 다음달 22일부터 26일간 캠페인 돌입 선언

미국 뉴욕의 한 이슬람 임맘이 이슬람의 최고 선지자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함마드의 탄생일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퀸즈 자치구의 재슨 하이즈에 있는 무함마드커뮤니티센터의 대표인 무함마드 압둘 케이유은 4월 22일부터 26일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센터의 페이스 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무함마드가 이슬람 뿐 아니라 전 인류의 예언자이므로 4월 26일인 그의 탄생일이 국가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센터는 이와 같은 운동을 2005년부터 논의해 왔고, 구체적으로는 퀸즈 지역의 카톨릭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펼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설득이 성공하면 3대종교가 합동으로 청원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퀸즈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공화당의 조셉 크롤리 의원은 일단 청원서를 작성해 시나 연방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만 밝혔다. 퀸즈 지역은 이슬람 신자들이 5만 명을 넘기고 있어 쉽게 일축하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 ■ 선교 소식 (제공푸른섬선교정보)

## 인도, 이슬람 마을서 쫓겨난 여성 신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이유로 퇴출

인도 서부 벵갈주의 이슬람 마을에 살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겪던 병이 치료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가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역시 이슬람 신자인 이 여성의 부모도 딸을 구타하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합세해 딸을 때려 결국 의식 불명의 상태에까지 빠졌다.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이름은 올해 22세의 레카 카툰이다. 지난 3월 9일 마을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구타를 당하면서도, 그녀는 "내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떠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전통적으로 완고한 이슬람 지역으로 분류된다. 마을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거나 기독교를 믿던 25가정을 향해 갖은 협박을 다하였고, 이제는 다섯 가정만 믿음을 고수하고 남아 있다고 한다. 이번에 크게 봉변을 당한 카툰은 사건 당일 할 함달라에 있는 Believers Church에서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과 부모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또 카툰이 믿음을 갖고 잘 지키도록 격려해 왔던 아이마잔 비비라는 여성도 크게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카툰이 봉변을 당

한 날 밤, 카툰의 부친과 20명 가량의 이슬람 강경신자들이 아이마잔의 집을 둘러싸 포위하고 기독교를 저주하는 구호를 외치며 아이마잔의 가족들을 협박했다. 그들은 아이마잔이 돈으로 카툰을 풀어 기독교로 개종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작년에 카툰은 생식기능 계통의 병을 얻어, 자주 하혈을 했다고 한다.

이 때 아이마잔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병까지도 낫게 되었다. 이 두 여성이 출석하는 교회를 맡고 있

## 나이지리아, 교회 향한 자살폭탄테러 교회 근처에서 차량 폭발, 소년과 임산부 등 총 8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자살폭탄테러 사건이 또 벌어져 소년 2명과 출산을 앞둔 여성 등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 교회의 외벽 근처에 미리 대기해 놓은 차량에서 폭발물이 터진 것이다. 지난 3월 11일 성령바르 카톨릭교회의 출입문 바로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폭발음은 2km 떨어진 지점에서 들렸을 정도로 폭발규모가 컸다. 또 폭발로 부수진 교회 건물의 잔해는 200미터의 반경의 범위까지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번 테러 역시 보고하람의 소행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왔다. 일부 흥분한 피해 교회 신자들과 카톨릭 신자들이 이슬람 신자들을 공격한 것이다. 주정부 보건당국과 경찰 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슬람 신자에 대한 카톨릭 신자들의 공격, 이에 대한 보안군의 진압 등으로 진압하는 군인들에 의해 사망한 기독교인이 있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플라투주의 조스시에서는 이처럼 두 건의 폭발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교회를 향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종교법에 의한 교회 폐쇄 시작

대다수 교회들, 재등록 거부로 불법교회 전락 위기

아제르바이잔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혹한 수준의 종교법을 도입했다는 보도는 나온 적이 이미 있다. 그런데 이 종교법에 의거해서 실제로 여러 교회들을 폐쇄하려는 준비를 당국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수도 바쿠에 있는 Greater Grace Church가 새로운 종교법에 따른 재등록에 실패해 폐쇄 위기에 몰렸다. 종교조직 사무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이에 따른 법률적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타히라 아사도바 판사는 지난 3월 15일, 이 교회의 문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혀 폐쇄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교회는 지난 1993년에 정부에 등록하여 법적인 합법성을 획득했으나 결국 이번엔 등록을 거부 당하면서 18년 만에 불법교회로 전락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카자흐스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종교법에 따라 성신자 50명을 확보하지 못한 교회는 모두 재등록을 거부 당하면서 최소한 579곳의 교회와 이와는 별개로 수많은 소수예배공동체들이 폐쇄 당하고 있다.

## 국내 순교지 탐방 '순교 역사를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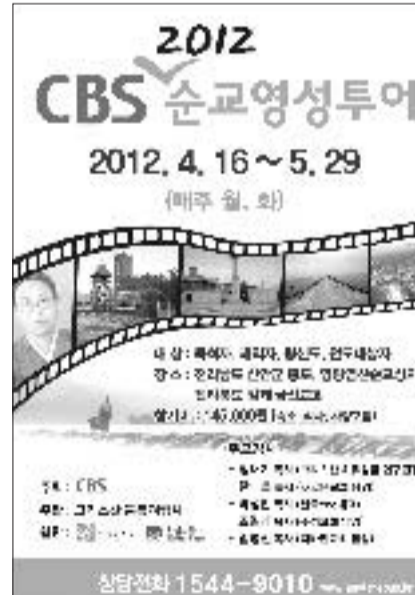
CBS 순교 영상 투어 다음달 16일부터 실시

CBS(사장 이재천)와 크리스천 돌봄 여행사대표 김정관은 '2012 순교 영상 투어'를 다음달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여행은 1박 2일 일정으로 7주간 매주 월요일 출발하며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인 증도를 중심으로 영광 염산교회, 김계 금산교회등 순교지를 순례하고 저녁에는 정대기목사(크리스천 치유 상담 연구원장), 한홍목사(새로운교회 담임), 박성민목사(한국 CCC 대표), 조일래목사(수정교회 담임), 임병진목사(다바인 교회 담임, 천국의 섬 저자) 등이 인도하는 순교영상 집회를 마련한다.

증도는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인 곳으로 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팔지도 않으며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다. 이는 문준경 전도사를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의 영향력이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6.25전쟁 때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부터 1950년 10월 순교하기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10여개 섬에 모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에 힘썼으며 순교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른 성도들의 생명을 구한 순교자이다.



영광 염산교회 역시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순교한 역사의 현장이고, 김계 금산교회는 1908년 지어진 'ㄱ'자형 교회가 여전히 교육관으로 쓰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번 순교영상투어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며 단순히 유적지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문의: 2650-7952)

◆이슈/기독교정당 실험,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 후보 면면 교계·정계 대표성 있는 인물 없어 표의 결집 어려워

## 기호 10번 기독교당=지역구 4명·비례대표 8명, 기호 20번 한국기독교당=비례대표만 2명 공천

지난 17대와 18대에 이어 기독교정당이 다시 총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기독교자유민주당(기독당, 대표 김총립)은 전국 246개 지역구 중 4곳의 후보 공천과 비례대표 8명을 등록했고, 한국기독교당(대표 정훈)은 지역구에는 한 사람도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2명을 등록했다.

기독당의 지역구 후보에는 대전 유성구에서 기독당원인 이재형씨(29세), 강원도 동해·삼척시에서 이용석씨(40세, 정당인), 당진시에서 예전교회 김창기 목사(64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서 황옥성 주하나빌립보 수양관원장(64, 여)이 출마했고, 비례대표는 1번에 김총립 목사(65세), 2번에 유충진장로(63세), 3번에 이상순장로(59세, 여), 4번에 이태호 집사(49세), 5번에 남상훈장로(63세), 6번에 권영식장로(73세), 7번에 고영석장로(65세), 8번에 최숙자권사(57세, 여)가 등록했다.

1번의 김총립목사는 통합측 미주장로 회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기독당 대표를 맡고 있다. 2번의 유충진장로는 지난 17대 때 기독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3번의 이상순장로는 서울 금란교회 장로로, 정통부 공무원 출신이다. 4번의 이태호 집사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현재 초이스시스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5번의 남상훈장로는 예정합동측 전국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육일공사 대표로 있다. 6번의 권영식장로는 예정합동측 총회 장로부총회장을 지냈다. 7번의 고영석장로는 2번 당진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데 18대 때는 기독당 후보로 출마했다. 현재 당진시 푸드뱅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8번의 최숙자권사는 18대에 이어 기독당 비례대표로 두번째이다. 고영 YWCA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한국기독당은 지역구에는 한 사람도 후보가 없고, 비례대표 1번에 정훈 목사(63세, 당대표), 2번에 전영춘 목사(70세)를 등록했다.

1번 정훈목사는 전 국립경찰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독립문통신 학장으로 한국기독당을 창당했다. 2번 전영춘목사는 정훈목사와 함께 독립문통신의 교수로 있으면서 현재 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교계의 관심은 과연 세번째 도전인 기독교정당의 실험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에 있다. 지난 18대 때는 정당 득표에서 443,705표(2.59%)를 얻었으나 0.41%가 모자라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과연 이번에 3%를 넘겨 원내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야 정통 정당들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당에게 지역 일꾼은 인물 위주로 투표하더라도 정당 투표는 기독교정당에 하라는 호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정당이 하나로 나서도 될듯말듯 한데, 이번에는 둘이 나와 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이름의 당 하나도 할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당을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기독당에게 표를 달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갖는다. 그것도 지금 양

기독교정당이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의 면면을 볼 때 교계의 대표성이나 정치적 지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기독교 가치관에 바탕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된다. 그러나 굳이 기독교정당의 이름을 걸고 정치계에 나서려면 교계가 신뢰할만한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1천만(유권자 약7백만)이라는 기독교인들만 믿고 기독교정당의 간판을 단다고 하여 누구나 표를 모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무리이다.

기독교인 누구나 저 사람이면 한국교회가 믿고 맡겨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인물이 당을 이끌고, 또 선거전에도 나서야 표를 결집시킬 수 있고, 원내 진출을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후보들이 어떤 신앙적 가치관이나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인물인지조차 검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독당인들의 표가 결집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당의 경우 정치에 나서는 사람은 평신도들이지 목사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보니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목사가 끼어있고, 한국기독당은 아예 둘 다 현직 목사이다. 이런 판에 그래도 교계와 정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성 기독교 정치인 중에 어느 누가 끼어주려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표 주자가 없는 기독교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강〉

### 한국기독교시인협회 **기독 시선(詩選)**

#### 세상살이

이 기 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할 줄 안다	명예도 그렇고 그러하니 이래도 저래도 신통치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강물 따라 흘러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겁 없이 영화를 누리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도 없이 종교처럼 신앙처럼 말이다.
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시인은 종종 박혀 있는 언어구조를 거부한다. 행과 연의 여백의 언어로 주위를 환기시키며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지시적 의미와, 두 차례의 설의법을 통하여 행간에 숨겨진 함의를 드러내고 교훈과 깨달음을 창출한다. 내릴 한 호흡과 부드러운 서도 강단 있는 음성으로 인생론적, 존재론적, 시적 집안에 천착하고 있다.



시인 안재천

## CTS기독교TV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 4월16일부터 CTS아트홀, 소외계층에 객석 기부

CTS기독교TV는 창사 17주년을 맞아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를 다음달 16일부터 5월 5일까지 CTS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뮤지컬은 아동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색감의 무대와 신비한 그림, 여러 나라의 다양한 타악기 라이브 연주 등이 펼쳐져 어린 자녀들의 감성을 높여준다.

본 공연은 전 세계 천 만부 이상 판매된 동화가 원작으로, 2004년 초연이후 1,000회 공연을 돌파했으며 국내외 10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

본 뮤지컬은 항상 나쁜 평가를 받는 청소년 부 편이 친구 엘리를 만나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다'는 격려를 받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자원봉사자협의회는 객석 나눔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 CTS아트홀은 이번 공연에도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객석기부를 진행한다.

특히 입장권 판매 후 잔여석을 배정하는



것이 아닌, 미리 좌석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문의 02-766-6007)



국제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창명)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굿피플 본부에서 필리핀 타가타이 지역의 빈곤 여성들을 돕기 위해 한성비전교회(담임목사 도원욱)에 여성 위생용품과 속옷 등 총 5천만원 상당의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 필리핀 타가타이 빈곤 여성들에게 나눔의 손길

### 굿피플, 한성비전교회에 여성 의류, 위생용품 등 물품 전달

굿피플이 한성비전교회에 전달한 여성 위생용품 10만개와 속옷 2,000여벌은 필리핀 타가타이 지역에서 만성적인 빈곤으로 인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 여성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필리핀 타가타이 지역은 필리핀 카비테(Cavite)주 타가타이시에 있는 화산지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 중 하나다.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큰 빈부격차로 인한 만성적인 빈곤으로 고통

받는 소외 이웃들 역시 많은 실정이다.

필리핀을 향한 굿피플의 나눔 실천은 처음이 아니다. 굿피플은 2001년 '필리핀 결핵 퇴치를 위한 사랑의 약품 보내기'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필리핀의 소수부족인 아이따족을 돕기 위해 태양광 설치, 보건소와 학교 건축, 주택 개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며 필리핀에 남다른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와시(Washi)'로 인해 큰 홍수 피해를 입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약 3억원 상당의 의류를 발송한 바 있다. 굿피플 김창명 회장은 "그 동안 필리핀 아이따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타가타이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성비전교회와 함께 돕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에 지원한 물품들을 통해 가난과 질병에 노출된 타가타이 지역 여성들이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99년 창립되어 지난 13년동안 전 세계 소외된 이웃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굿피플과 필리핀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진실된 나눔을 실천해 온 한성비전교회, 이들의 따뜻한 손이 필리핀 타가타이 지역의 빈곤 여성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애교회**

**표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합3:18)



담임 **조경삼** 목사  
〈예장개혁 총회장〉

□ 원로장로 **김중훈**  
□ 시무장로 **김광태 김근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33-12 ☎ 02)395-8663 H.P : 011-308-521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농어촌 소득증대의 새로운 분야 '한국발효효소협회' 창립

## 기술표준화·품질인증·한국최초 "발효효소기술사자격증" 수여

사단법인 한국발효효소협회(회장 차기 전목사, 사무총장 김윤식목사)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2011년 8월 12일 허가를 받고 비영리법인으로 발족했다. 본 협회의 발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교회의 자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효효소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음료 및 조리용 등 여러 분야에 원료로 사용되며 현재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및 식품회사에서 매년 상당한 많은 양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모 화장품 회사는 1개 회사에게 연 5천여여치의 발효효소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 자라는 식물은 계절변화와 토양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농작물(대밀, 채소, 약초 등)이나 식물(오가피, 술, 아카시아, 뽕잎 등) 독초를 제외한 모든 식물에서 가장 우수한 발효효소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발효효소산업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으나, 한국은 발효효소를 생산하는 기술도 표준화 되지 못하고 제각각이며, 소규모의 기업들이 발효효소를 활용한 식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성분과 효능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번에 발족된 한국발효효소협회는 발효효소기술을 학문적으로 표준화하고, 또 발효효소의 품질검사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연구위원(각 대학교수진)을 구성하고 연구소를 개설하고, 오는 4월 7일부터 협회의 교육장(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실)에서 일반인 발효효소교육을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각 지회 지부에서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본 발효효소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발효효소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발효효소 분야의 창업, 취업 및 유통 등에 유익하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귀농귀촌을 권장하고 있으나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선했 나 서지 못하고 있는데, 발효효소기술사 교육은 귀농귀촌 성공률 100%를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대단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협회는 발효효소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생산 지도, 창업 지도, 유통 지도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한 여러 분야에 봉사하며, 특별히 농어촌교회 자립방안으로서 본 발효효소기술을 보급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나 중진들이 발효효소기술을 익히고 취지를 잘 이해한 후 교인들도 기술교육을 받고 공동생산을 하면 교인들의 소득증대와 교회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유휴지를 개발하여 집단취락지구를 형성하고 다양한 약초와 식물을 재배하여 고가의 발효효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몽 및 유도하고 있으며, 많은 산야에 경제성이 없는 잡목이나 잡초를 약초 등 수익성이 있는 식물로 교체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계몽하며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전남 곡성군 석곡면(면장 김영춘)에서 면장과 직원 및 농촌지도자 등 발효효소에 관심을 가진 60여명에게 협회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문의 : 홈페이지 www.koreapec.co.kr  
HP : 010-3347-3202

■생명의 말씀 / 창세기2:7, 이사야64:8, 레위기19:11

### 깨어진 사회를 본다



배성산 목사(서울교회 명예목사)

몇 일전(3월19일)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상 사이에서 어느 한 스님이 슬로건을 걸고 세상을 한탄하며 세종대왕 상 앞에 신문고를 올리고 있었다. 세종대왕님이시여! "어찌해야 합니까?" "양심이 쏠아버린 이 슬픈 사회를 [양심사회가꾸기] 라는 제하의 문으로 쓸쓸한 날씨에도 이를 사회에 직고(直告)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는 사회의 구석구석이 양심이 바싹 말라서 물기가 없이 쏠아 붙어 모든 사회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보게 하는 것이다.

어쩌다가 오늘에 이리하여 우리의 '깨어진 공동체'를 보는가! 하는 마음이었다. 이는 내 자신의 양심에게 던지는 비수(匕)의 꺾임이었다. 이는 실용성을 따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양심과 정리가 없는 삭막한 사회를 보는 것이었다. 이 사회는 도덕성이 피폐된 위험한 사회인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오늘의 사회에 성직자, 법조계, 정치인, 교수, 언론인, 워킹자 등등 이런 사람들의 양심이 말라버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덕을 잃은 것은 전반 사회를 불신과 증오로 불태우고 있는 악의 선봉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는 양극화를 낳고 서로의 사이에 관계가 부셔져 양 극단으로 갈라지며 서로 증오하는 현상을 보게 한다. 우리 사회는 수년간 지속된 양극화의 심화, 재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폐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집중된 반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은 매출액과 이익이 늘고 상당한 투자여력을 가지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익이 줄고 경영난에 처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계층 간의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하위 20%는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이 몰락해 가는 양상이 점차 가속화되어 간다. 수출과 내수간,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의 차별화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惹起) 되는 사회현상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의 문제는 "깨어

진 사회"를 보는 것이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미국 클레이몬트 대학의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피터 드러커는 이미 1969년에 그의 저서 '단절된 시대(The Age of Discontinuity)'가 그의 유작으로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예언하였다.

그의 주장의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이 형성될 것을 예언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세계경제가 형성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이 형성될 것이며, 세 번째는 다양한 조직들에 기초한 새로운 다원주의가 등장하여 정치와 사회에 관한 전통성이 깨어질 것이고, 네 번째는 지식이 새로운 자본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등장하고 조직을 경영하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권력중심, 노동력집단으로 등장하여 인간을 무시하는 지식과 지식인의 책임과 의무가 문제로 등장하리라 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성장한다. 사람은 스스로가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한다. 만약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만약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를 높게 잡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의 작용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양심이다.

사회는 변화이나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직 속에서 일한다. 그래서 기존 기업이 혁신능력을 함양하려면 구성원이나 기업가가 인간의 참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이 정신을 중심에 두고 여러 관계들을 설정하여 보상과 인센티브, 인사결정 그리고 각종 정책이 모두 올바른 기업가적 행동을 장려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의 삶은 대부분 깨진 관계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다. 개인적인 문제도, 사회적 문제도 관계 형성의 깨어짐으로 생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두시었다. 양심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인간은 정직과 신뢰를 삶의 근본 자본으로 알고 사는 것이다. 신의는 대인관계의 근본이다. 신의를 지킬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서로 단결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다. 인간의 위기는 서로 불신에서 생긴다.

(baessaem@gmail.com)

# 꿈을 품은 나무, 트리플래닛과 월드비전의 만남

## 월드비전, 수단 톤즈에 나무심기 사업을 위한 MOU 체결

지난28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대표 김형수)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나무 심어주기' 프로젝트를 위한 MOU를 진행했다. 트리플래닛은 유저들이 스마트폰 앱 게임으로 가상의 나무를 키우면 광고로 얻은 수익금을 월드비전의 수단 톤즈 망고나무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유저들이 심고 가상의 나무가 광고수익기부를 통해 아프리카의 진짜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번 MOU는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꿈을 가진 월드비전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의 만남이라 더욱 특별했다. 트리플래닛 김형수대표는 "전 세계 16억 인구가 생계의 대부분을 산림에

의존한다. 개발도상국의 80%의 인구가 과일, 채소, 의약품 등을 산림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는 나무를 꿈꿨다. 나무심기 앱을 통해 생기는 광고비를 월드비전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수단 톤즈의 망고나무심기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김성태팀장은 "월드비전은 아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수단 톤즈에서 망고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나무심기의 꿈을 가진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을 만나게 된 거다. 망고나무를 식량 대체재로 활용하여 기근은 줄고, 망고 판매를 통한 소득도 갖게 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나무 심어주기'

앱은 안드로이드로는 이미 출시되었으며 iOS 버전은 4월 초부터 앱 스토어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



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세계 100 여 나라에서 긴급구호, 개발사업 그리고 옹호사업을 진행하는 국제구호개발기구이다. 해외 44개국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등의 세계적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NGO중 최초로 1994년부터 대북지원을 시작해 현재 북한의 주요농업개발사업인 씨잠자 생산사업 및 과수묘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총회장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총회장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부총회장 이태곤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부총회장 강영선 목사  
순복음신교회 담임목사



부총회장 김궁준 목사  
분서교회 담임목사



부총회장 허동진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 최경한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시무 김경완 목사  
관동교회 담임목사



회계 박병섭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재무 박성범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특집/ 한국의 기독교 수용인가, 전래인가?

# 선교사에 의한 일방적 전래로만 볼 수 있을까?

## 교회발전연구원, 한국기독교 기원에 대한 쌍방 토론회 개최

한국교회는 120년 전후의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역으로서 교육, 문화, 의료, 사회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과를 이룬 한국 기독교에 대한 지난 역사적 자료는 그리 체계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한국교회는 지난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의 기독교는 수용이다

연구홍교수 '민중적요구에 의해 수용' 연구홍교수는 한국 기독교의 수용을 한국근대사 속 민중의 해방열망과 역사변혁 의지를 구체화한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그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것을 갈망했는가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1855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다고 결론 짓는 것은 너무나 선교사적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것, 연구수는 "우리 나라에 복음은 선교사가 준 게 아니라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조선조 후기사에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조선사회가 분화되면서 하부로부터 시작된 민중층의 장악과 전쟁 이후 유교로부터의 해방하고자 하는 열망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연구수는 선교사들에 대한 한국의 복음화 시도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일방적인 전래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전인 1832년에 독일 루터교 귀족자선 선교사 등이 한국을 복음화 시키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한국사회 내부에 형성되어진 사회구조적인 분화와 민중층의 성

장, 그리고 개화파 지식인의 형성은 이미 한국땅이 복음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며 "이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은 바깥에서 전파됐고 우리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받기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876년에서 1880년 사이 만주 땅으로 오가던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이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서를 번역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이미 이 땅에 복음을 들여왔으며, 1882년에는 일본으로 박영효를 수행해서 갔던 이수정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미국 기독교에 직접 복음을 요청하는 문서도 보낸 사실을 예로 들었다.

### 한국의 기독교는 전래이다

이종전교수 '전래없는 수용은 없다' 이종전교수는 전래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해석이고 수용은 복음을 받아들인 수용자 중심의 해석에서의 접근 원리지만, 근본적으로 전개가 없는 수용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교수의 주장 근거는 일방적인 수용은 그 과정에서 본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그는 "수용의 과정에서 동반되는 토착화는 본질에 대한 왜곡이나 변질에 대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전래를 중심으로 수용을 통한 교회형성과 발전을 살펴야만 한국교회의 실체를 성찰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수용자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하는 질문을 할 때, 직접적인 전달자가 없어도 그것이 문서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로인해 기독교는 수용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수용은 전래 이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수용은 전래의 다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래가 선행되지 않은 수용은 그 자체를 번역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이미 이 땅에 복음을 들여왔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래와 관련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수용의 입장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입국한 시점을 한국교회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교수는 "선교는 단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며 "비록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 사실상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은 선교사들의 입국과 그들이 공동체를 찾아가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 세움으로써 시작됐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래의 역사' 또는 '접촉사' '준비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진태기자)

# 유철규목사, 뉴타운 재개발 관련 조속한 수사 촉구

## 지난 27일 대의원회의에서는 감사 출입 저지당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C구역 뉴타운 재개발에 있어 조합측의 부정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철규목사(신풍중앙교회)가 지난 23일 서울 연지동 다사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목사는 "인창C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 조합장 윤희옥씨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할 의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각종 불법 및 이권 개입이 의심되는 행위를 일삼으며 감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조합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목사와 조합원들은 '특정 범죄 가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조합장을 고발한 것이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1월 19일 고법에 항소 2월 20일 재조사(2012 형제 제8599 결정)이 내려져 현재 의정부 지검 308호(반상관 검사)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실을 밝히며 "시공사 선정 전에 의정부 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 주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검찰의 엄정

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조합은 4월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에 조합원들은 "해당 수사기관이 조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눈 앞에 있는데도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없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릴 경우 여기에 대한 파장 또한 클 것으로 본다"면서 "수사기관은 왜 이 사건에 대해 미루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대의원회의에서는 시공사 선정 안건과 감사 해임안건이 채택돼 두 안건이 오는 14일 총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감사를 전부 참석하지 못하게 제지했고 이사를 중 일부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통과 된다면 조합은 본 계약 체결에 들어갈게 된다. 현재 조합장의 행태에 반대하는 유철규목사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옥조합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송승원기자)

# 전남 여수 남부교회 예배당 화재로 전소

## 예장합동측 소속, 화재 원인 밝히지 못해

예장합동 여수노회 소속 남부교회(담임목사 김영춘)가 갑작스런 화재로 교회당이 전소되어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지난 27일 오전 4시 무렵, 남부교회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콘크리트 목조 인테리어시절인 남부교회는 삼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교회내부는 물론, 칸막이 사택까지 전소되어 김영춘목사 가족은 옷가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화재원인은 조사 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번 화재로 창문 유리 파손, 교회 물품 소실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춘목사는 "예배당 내부 전소로 강대상, 엠프, 키보드, 에어컨, 등 성물 하나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아직 화재 원인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화재 보험에도 들지 않아 어떻게 감당할 지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부교회는 10년 전 김영춘 목사가 개척당시부터 사

재권에서 제70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월세 30만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화재 직후 여수노회 동 시찰회(시찰장 강옥길목사)는 남부교회를 찾아 화재현장을 둘러보았으며, 동 시찰장 강옥길 목사는 남부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긴급 시찰위원회의를 갖고 교회별로 성금을 모아 남부교회를 돕게 해 달라고 노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동 노회는 지난 19일 전남 여수시 학동 영광교회(담임목사 양

# 교회협 김영주총무, 미 EAD 행사 참석

## 제주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건설 주제로 발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목사(사신)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Ecumenical Advocacy Days행사에 참여했다. EAD는 평화, 정의, 환경과 경제 정의에 관한 이슈들을 가지고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이것이 내

가 추구하던 금식이나? 우리의 경제, 삶, 국가적 우선순위"로 주제강연과 워크숍은 세 가지 이슈 △제주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건설 △일본 평화헌법 9조 지키기 △필리핀 군사시설로 진행했다. 교회협 김영주목사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에 '제주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주제로 국가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현실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 평화의 섬 제주도가 미·중 관계에서 전쟁의 섬이 될 가능성과 미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 그리고 생태와 문화 유적의 파괴 등의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종교, 시민 사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



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해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하여 한국 기독교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당부했다.

# 레이디 가가(Lady GaGa)의 한국공연과 문제점

연론회는평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4월 27일 오후 8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레이디 가가는 이탈리아계 이민 2세 미국인이며 동성애자, 동성애 옹호론자이다가 세계최대 팔로워(온라인 추종인들) 보유자로서 최근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하나이다.

가가는 각종 엽기적인 공연 행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피로 물든 고기로 옷을 해 입고 공연을 하기도 하며,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도 물론,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나아가 동성애를 권장 및 지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를 '자신의 신'이라고까지 고백하는 동성애자들도 있다.

최근에는 레이디 가가가 친구이며 요가 선생이고 동성애자인 트러서 도나건의 주례를 맡기 위해 목사안수를 받을 계획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레이디 가가는 공연 중에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인들을 조소하는가 하면, 관객들을 향해 함께 지옥으로 가자고 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 중 하나이다.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면 그가 공연했던 국가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녀는 2009년 8월 이후 두 번째 한국 공연인데 첫 번째 공연이었던 2009년 하반기 이후, 국내 동성애 허용에 대한 요청이 거뒀던 것을 기억한다. 또 2010년 SBS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 무산되었던 법무부의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재검토가 있었고, 이어 2011년 3월 군동성애허용법안에 대한

논쟁, 그리고 얼마 전 학생인권 조례안 통과까지 연이여지는 동성애가 우리 사회 화두가 되었다. 이번 공연의 주제가 'The Bom This Way Ball'로, 2011년 5월에 발매되어 6백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Bom This Way' 앨범 발매 이후 펼쳐지는 첫 월드투어 공연이다. 이번 행사의 주회와 주관은 현대카드사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대응과 기도도 절실히 필요하다. 즉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율란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꼴이 되는 공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영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꾀계를 물리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이번 총선은 한국교회의 미래 결정할 중요한 전기

## 미래목회포럼, 총선 앞두고 좋은 공약 12선 선정

4.11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목사)이 최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4.11총선의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좋은공약 12선을 일차적으로 선정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공약은,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을 법령과 제도 개선에 통한 지원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사회윤리적 운동의 전개와 기독교 유산의 유지, 발전,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할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 모든 시험 주일 지킬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시험 선택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위한 공무원 및 자격증시험 토요일 시험 교차 시행제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의 한계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창조론을 함께 서술하도록 하므로 학생들의 바른 이해를 돕도록 교과서 창조론 삽입 △재개발과정에 있는 지역의 기존교회나 개척교회가 부당한 대우와 쫓겨나는 사태를 방지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재개발과정에서의 개척교회의 부당대우 개

선 △불교의 전통차집이나 천주교 미사용품판매 등 기념품센터를 고신교로 행위로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내에서 교인 대상 활동(식당, 서점, 문화강좌, 커피숍 운영 등)을 고유 선교행위 인정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유건강한 클린 미디어 윤리교육을 위한 교직원지원 △종교자유 보장과 더불어 행정불편 지양, 운영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 장애인 지원법 개정하는 기독교복지 신고시설 양성화와 인가제도 완화 △ 해외 선교사들의 역할을 통한 한류활성화 지원방안으로 한국어 교육,태권도 교육, 한국문화 보급을 하는 해외선교사의 문화교류 활동을 위한 한민족문화교류 네트워크 지원 △기독교 문화유산을 근대로만 한정할 것

이 아니라 가야시대 기독교 전래, 근대문화 지정, 특별히 해외에 있는 안창호 유적을 발굴하는 안창호 프로젝트와 해외선교역사 문화현장 발굴하는 기독교 역사 유적지 발굴 및 복원 사업 지원 △북한의 인권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제정과 매년 500여명이 북송되는 현실에서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을 통한 구제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하는 기독교복지 신고시설 양성화와 인가제도 완화 △ 해외 선교사들의 역할을 통한 한류활성화 지원방안으로 한국어 교육,태권도 교육, 한국문화 보급을 하는 해외선교사의 문화교류 활동을 위한 한민족문화교류 네트워크 지원 △기독교 문화유산을 근대로만 한정할 것

원 △대안학교와 자율형 사립교의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하여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 대안학교 활성화 지원 등이다.

포럼은 이번 좋은 공약12선을 토대로 총선 후보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또 각 당과 국회의원 후보, 전국교회에 보낼 예정인 '기독교 유권자 실천 행동지침' 선정에는 최석원목사(오산평화교회)와 주대준장로(카이스트), 양희승교수(연세대), 김승욱교수(중앙대), 양인평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병철총장(고려대) 등 정·재계 및 종교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했다.

최석원정책의장은 "각 당과 총선 후보에게 기독교 공약을 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기독교 정책을 펼칠 것인지 물을 계획"이라며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초를 제공하는 기독교 정책 수립은 물론,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분립위원회, 한서노회측 결정에 시정명령 내려

## 은요섭목사, “분립위원회의 결정은 월권이다”

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목사)와 서한서노회(노회장 안영실목사)가 ‘제자교회는 분립에서 보류한다’고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교회 담임 정상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 파견을 결정 한서노회측 결정이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손상률목사)가 한서노회측 결정을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한서노회분립위원회는 서울 사당동 종신대학교에서 임원회를 열고, 한서노회측 결정된 정상목사의 당회장권 임시정지 및 임시당회장으로 은요섭목사를 파송한 것은 분립위의 결정과 양측 노회의 합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날 분립위원들은 한서노회측 결정이 서한서노회와의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30일까지 한서노회측이 기존의 결의를 시정하고 교단지에 결정사항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한서노회분립위원회가 제자교회 비대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대위는 앞으로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분립위원장 손상률목사는 “한서노회측이 양측 합의한 것과 달리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제자교회의 소속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목사는 “제자교회의 소속을 지금 정하게 되면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교회가 안정화 된 후 소속 노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서노회분립위원회의 결정에 제자교회 비대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비대위는 “합의한 바와 원칙에 따라 한서노회분립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다”며 “한서노회가 앞으로 합의내용을 어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한서노회측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결정된 은요섭목사는 한서노회분립위원회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분립위원회는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분립위원회는 분립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즉 이번 결정은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분립위원회에서 한서노회분립 문제와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지 않냐고 묻자, 은목사는 “분립위원회가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듯 한서노회측이 이번 분립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자교회를 놓고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립위의 결정에 한서노회측이 따를 것인지 이에 불복해 또다른 분쟁이 일어날지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상원기자)

# “기도 준비없는 부흥회가 한국교회 병들게 한다”

## 예장연 부흥사회, 직업 부흥사들의 기복주의 설교에 일침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사장 조성훈목사) 부흥사회(회장 장성화목사)는 지난 22-23일 안산 대부남동 대부도 수양관에서 제6회 총회 및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흥사회 총회는 ‘나를 보내소서’(사 6:8)라는 주제아래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흥사회 상임총재 조성훈목사의 사회와 감사 민승국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이날 총재 김인식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부흥사들의 울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들은 한번 부흥회를 나가려면 3개월 이상 기도과 성경연구로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오늘날 부흥사들은 1년 내내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부흥회를 나가고, 심지어 어떤 이는 한 주간에 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까지 하는데, 자신이 부흥회를



를 인도해야 할 교회에 대한 기도와 영적 준비는 언제까지 할 수 없다”며 “결과 준비없이 하는 부흥사들의 기복주의 설교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목사는 그러므로 예장연 부흥사회 소속 부흥사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없이 부흥회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총회는 회장이 장성화목사(수리교회)를 재임시키고 일부 임원을 개선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장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영성을 갖춘 후배 부흥사 양성을 위한 부흥사 연수원을 운영하여 한국교회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서 수십년간 염원하던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기독교 유민주당(대표 김충립)이 지난 2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거대책위원회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민당은 상임고문, 최고위원, 공천자를 소개하고, 선대위원장 및 선대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날 발대식은 예배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는 최고위원 최병두목사가 맡아 김동권목사가 ‘하나님의 문화적명령’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목사는 “이 시대 기독교당이 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며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정치권에도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기행목사, 장경동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서경석목사, 장학익목사, 전광훈목사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전광훈목사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 입성 못하면 기독교 이름으로는

#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목회전략 수립하는 시간”

## 오정현목사 주강사로, 제91차 제자훈련 지도자세미나 성료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원장 오정현 목사)이 ‘평신도를 깨워 목회의 동역자로 삼는다’는 철학을 토대로 지역교회에 제자훈련을 보급해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온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led to Awaken the Laity Disciple Training Seminar, 이하 CAL세미나)’가 91기를 맞았다.

지난달 26일 안성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

18개국에서 423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 그 열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세미나를 시작하며 김명호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는 “평신도는 교회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이다. 평신도를 깨우는 일은 21세기 교회의 대안이며 희망이다”고 강조하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습, 그리고 제자훈련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된다.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본질적인 도전과 함께 사역의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정현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했고 이외에도 김명호목사, 박주성목사, 양승언목사, 김영순목사, 강명욱목사 등이 참여해 동시대에 필요한 목회 전략과 패

러다임을 확립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주제강의, 소그룹 강의, 소그룹 실습, 현장참관(순장반, 제자훈련반, 다락방) 등으로 진행됐으며 제자훈련에 대한 이론과 현장을 함께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특히 이번 91기 칼 세미나에서는 칼넷 지역임원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지역별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부, 새가족 사역, 큐티사역, 대각성전도 집회 사역, 40일 캠페인 사역 등으로 나누어진 부서별 선택강의도 제공돼 참석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었다.

### 기자수첩



송상원기자

### 고신도 돈 선거판 벌었나?

한국기독교교회는 금권선거로 인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돈 문제는 성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예상고신 총회장 정근두목사와 관련한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 성향을 가진 고신측 목회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 전영한목사가 정근두목사의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목사는 “현 총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전국 노회를 투어하며 당시 총대들에게 식사 접대와 함께 교통비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씩 돌린 사건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다”면서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는 글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교계언론에는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과 건넨 의혹이 있는 사람 명단이 제보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돈을 건넨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에는 정근두목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고신측 인사들에 대한 돈 선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정근두목사의 돈 선거 의혹이 일기 몇 주 전에는 고신 증경총회장이 현 한장총 대표회장인 윤희구목사와 관련된 금권선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장총 관계자에 따르면 한장총 내부에서 윤희구목사가 상임회장 출마시

선거 전날 총대들에게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20만원씩 교통비를 준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했으나 윤목사가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정근두목사도 자신에 대해 들고 있는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해명할 뜻이 없다는 드러냈다. 덧붙여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왜 그런 것일까? 당당하게 해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 기독교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 비례대표 1번 김충립대표, 지역구 포함 총 11명 출마

이제 힘들다고 본다”며 “다녀오면 4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하나님의 성령이 기독교에 운행하시는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록 국회의원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두 달 만에 45만표를 획득해 통일교의 국회 입성을 막아내고, 교회 건축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 법 제정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기독교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인물은 1번 김충립박사(기독교당 대표), 2번 유충진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 전 경기도 의원), 3번 이상순장로(강리교 장로 여성대표), 4번 이태호집사(초이스 시스템 사장), 5번 남상훈장로(예장합동 전 청장동 협회장), 6번 권영식장로(예장합동 전 부총회장), 7번 고영석장로(강리교 당진 지방회, 푸드뱅크 사장), 8번 최수자집사(YMCA 사회운동가) 등이다. 지역구에도 이재형(대전 유성), 김창기(충남 당진), 황옥성(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3명이 출마했다.

(차진태기자)



통일교 문화·예술전당인 청심평화월드센터 지난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개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사무총장 이영선목사)는 이에 대한 경계를 요청했다.

본 센터는 지하3층~지상4층으로 지어졌으며 연면적 8만2800㎡ 규모의 실내 공간으로, 2만 5천여명을 수용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통일교 문선명교주, 세계평화여성연합회 회장자 총재, 4남 문국진 통일교 회장, 7남 문정진 통일교 세계회장, 석준호 통일교 한국회장, 정병국 국회의원, 황선조 선문대 총장, 김병수 세계일보 사장, 김민하??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공동회장, 추성춘 생화정지아카데미 원장,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 한현수 청심 기획조정실장, 탤런트 정혜선 등이 참석했다고 통일교 측은 밝혔다.

통일교 산하 문화·교육기업인 청심그룹이 설립해 운영하는 ‘청심평화월드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28일 기공식 이후 3년 5개월만에 개관식을 가지게 됐다. 이 청심평화월드센터는 각종 공연과 행사

를 할 수 있는 중앙무대 및 관람석과 체육경기, 종교집회, 문화콘서트 공연 등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목사는 “통일교측은 요즘 2012 여수엑스포 개관에 맞춰 여수시도순회회를 2월 28일에 개관하였으며, 2012년 3월에 개관한 가평 실내 문화예술전당인 청심평화월드센터 등 통일교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은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통일교 관련 단체 및 기업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평소에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육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기고



장헌일박사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 국가조찬기도회의 목적과 필요성

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과 영향력이 참으로 아름답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지도자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조찬기도회는 자연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대통령직과 국가지도자에게 부여된 그 직을 위한 기도회로, 그 직을 수행하는 국가지도자를 통해 국민에게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주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할 국가조찬기도회는 단전 2장에 근거하여 기도생활의 권면을 실천하는 각 개인의 신앙의 표현이다. 기독교인들은 직분과 사명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교(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다. 특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상황에 따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

제 제한한다든가 간섭해서는 안되며, 자기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최근 불교계는 기독교정치의로서 소신껏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활동하는 기독교회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낙선대상자로 지명하여 발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월 1일 미국 워싱턴 DC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60회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조계종 차기 종정인 불교 지도자가 종교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불교계는 기독교 고유의 신앙의 다양한 기도회 형태 중의 하나인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 불교계는 글로벌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선진국가로서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다종교 사회에서 좀더 성숙된 종교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언행은 삼가야 하며 고유한 신앙활동을 존중하는 품격과 함께 종교간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총선앞에한국교회의중요한책임이다

내(해동, 올베른 총신참여 촉구) 성명 발표

살림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박사)이 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바른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 단체는 지난 28일 ‘4.11총선을 맞아 한국교회의 바른 정치참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국사회는 부의 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은 한국의 부패한 정치풍토를 새롭게 하고, 정의와 평화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루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정치권에 도덕성과 회복을 촉구하고, 우리사회가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한국의 정치구조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 단체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한국교회의 자세에 대해 극단적인 좌우의 이념을 배격해야 하며, 인권과 도덕적인 가치를 위한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현재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통대협, 통일교 ‘청심평화월드센터’ 경계 요청

## 통일교, 경기도 가평에 2만5천명 수용하는 문화예술공간 개관

통일교 문화·예술전당인 청심평화월드센터 지난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개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사무총장 이영선목사)는 이에 대한 경계를 요청했다.

본 센터는 지하3층~지상4층으로 지어졌으며 연면적 8만2800㎡ 규모의 실내 공간으로, 2만 5천여명을 수용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통일교 문선명교주, 세계평화여성연합회 회장자 총재, 4남 문국진 통일교 회장, 7남 문정진 통일교 세계회장, 석준호 통일교 한국회장, 정병국 국회의원, 황선조 선문대 총장, 김병수 세계일보 사장, 김민하??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공동회장, 추성춘 생화정지아카데미 원장,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 한현수 청심 기획조정실장, 탤런트 정혜선 등이 참석했다고 통일교 측은 밝혔다.

통일교 산하 문화·교육기업인 청심그룹이 설립해 운영하는 ‘청심평화월드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28일 기공식 이후 3년 5개월만에 개관식을 가지게 됐다. 이 청심평화월드센터는 각종 공연과 행사

를 할 수 있는 중앙무대 및 관람석과 체육경기, 종교집회, 문화콘서트 공연 등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목사는 “통일교측은 요즘 2012 여수엑스포 개관에 맞춰 여수시도순회회를 2월 28일에 개관하였으며, 2012년 3월에 개관한 가평 실내 문화예술전당인 청심평화월드센터 등 통일교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은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통일교 관련 단체 및 기업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평소에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육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장을 역임한 바이다.

허영길 이사장은 “한신대의 건학이념인 진리와 자유,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한신 구성원들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한신대가 인문학 정신과 인성교육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과 대학으로 성장해 양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활절 뮤지컬 <더플레이> 첫 번째 에피소드 '떡볶이'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코믹한 에피소드 통해 깊은 통찰 던져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들에게 문화선교연구원은 '더플레이, 첫번째 에피소드 떡볶이'를 통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야 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더 플레이'를 요약하자면 현대인들의 우상에게 던지는 강한 메시지를 배꼽 잡는 유머와 깊은 통찰력을 통해 보여주는 뮤지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뮤지컬 속에는 웃을 수만은 없는 신랄한 통찰이 들어 있어 현대인들이 간직하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

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서 지켜내야 할 십계명 중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더플레이'를 보면 과연 우리는 부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만든다.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코믹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번 작품을 기획한 임성민 원장은 "이 작품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서 지켜내야 할 십계명 중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주제로 기획했다"며 "물질·명예 등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던지는 강한 메시지를 배꼽 잡는 유머와 깊

은 통찰력을 통해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향후 에피소드를 추가, 대학로 극장에서 확대 공연할 예정이다. '더 플레이'는 제8회 한국뮤지컬 대상 5개 부문(최우수작품상, 극본상, 남우주연상 등)을 휩쓸었다. 이 작품은 기독교계에서 출발한 문화콘텐츠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문화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제목이 암시하듯 향후 에피소드를 추가, 대학로 극장에서 확대 공연할 예정이다. '더 플레이'는 제8회 한국뮤지컬 대상 5개 부문(최우수작품상, 극본상, 남우주연상 등)을 휩쓸었다. 이 작품은 기독교계에서

출발한 문화콘텐츠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문화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22일 소망교회에서 초연을 시작으로 부활절 이후인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열림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10일 이후부터 8월까지의 전국 초청 공연이 시작된다. 초청공연은 교회, 군부대,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기독교 문화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교회에서 가정의 달 행사와 전도행사에 전교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높은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 플레이'를 기획한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 1998년 설립됐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활절문화 뮤지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약화된 부활신앙을 새롭게 선포하고, 받은 바 은혜와 기쁨을 동시대 문화상황에 맞게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누며 민족의 축제 자리매김하는 부활절문화를 꿈꾸고 있다. 2006년 창작뮤지컬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 2007년 <피터>, 2008년 <아름다운 초대>, 2009년 <가련아! 사랑해> 그리고 2011년 <장기러, 그사람>을 제작한 바 있다. 작년에 공연된 <장기러, 그사람>은 연대세브란스병원, 부산 복음병원, 포항시민회관 등 전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고 대학로 장기극장공연으로도 무대에 올라, 교계 인파에서 호평을 받았다. 임 원장은 "문화선교연구원이 교회들과 협력해 대중문화의 역기능으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나아가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작은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2-743-2535)

## 주대준장로의 신간 '바라봄의 기적'

지리산에서 청와대를 거쳐 KAIST에 이르기까지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청와대에 입학하여 청와대에 파견된 선교사관 사명감을 갖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주대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의 전도행적적 증언의 기록.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사명자를 사용하시며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직장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꿈꾸는 이들, 사명의 장애물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출구 전략을 보여줄 것이다.



### 책 서문 중에서

나의 공직생활 33년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20년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 중의 큰 축복이었다. 나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20여 년 동안 다섯 번의 대통령을 모시며 청와대 근무했다. 그것은 나의 선택과 능력을 떠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선 '청와대 기독교우회'라는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다.

1991년, '청와대 기독교우회'가 창립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어 그분을 예배토록 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의 증인이요 목격자로 살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청와대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이 땅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자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부족한 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다. 이 책은 그런 나의 영적인 여정을 담은 기록이자, 우리가 담담하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담은 글이다.

## GoodTV '우리교회 방송' 서비스

GoodTV기독교복음방송(사장 이상로)이 운영하는 KT 올레TV의 기독교 포털 서비스인 [우리교회방송]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P&TV Industry Awards 2012'에서 Best TV App분야에서 세계 8대 TV App으로 선정됐다. 'IP&TV Industry Awards'는 매년 세계적인 통신미디어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인포퍼 텔레콤 앤 미디어(Infoma Telecom & Media)가 영국 런던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전 세계의 IPTV, 케이블 TV, 웹TV 등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1개 부문에서 분야별 응모작을 받아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이상로 사장은 "우리교회 방송국은 2011년 9월 기독교복음방송 GoodTV가 ㈜KTH에 제안하여 ㈜KTH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GoodTV에서 운영하는 CUG 방송시스템으로 현재 120,000가구 이상의 회원과 1만 8천여 편의 기독교 콘텐츠를 30개 장르로 구분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매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어 폭발적인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더욱 많은 기독교인이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 new BOOK + MUSIC

### 그 한 사람이 없는 세상

작가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겪었던 일들을 통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다. 소품과 고모라 성에 의한 10명이 없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 많은 곳이 무너지

고 있음을 저자는 안타까워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저자는 찾고 있고, 그리고 있다.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보여 준다.

(글출판사/ 신광옥/ 12,000원)

### 커피 칸타타 스토리

'커피 칸타타'라는 이름의 작은 커피숍에서 저자가 보고 들은 이야기와, 신앙인으로써 커피숍을 찾는 이들에게 선교하는 일상을 담은 에세이다. 말하자면 비즈니스 선교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를 이해하고 발견하려는 것이다. 그가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나아가 삶을 반성하는 기회로 만든다.

(소니뮤직/ 산을 넘는 사람들/ 14,200원)

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크리스찬서적/ 신성준/ 6,000원)

### 산을 넘는 사람들-신앙사계

복음을 들고 산을 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산을 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앨범인 신앙사계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계절을 노래한 '신앙사계' 앨범에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회개와 믿음의 여정, 내려놓음과 성령 충만의 은혜, 사랑의 나눔과 서로 세움을 통해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표현돼 있다. 정진수작곡가, 심어송라이터 지은(JION), 함춘호, 강수호, 이근형, 이태윤 이윤선 등의 쟁쟁한 음악인들 참여해 음악적 완성도도 만족할 만하다. (소니뮤직/ 산을 넘는 사람들/ 14,200원)

## 피종진목사 4월 국내·외 성회일정

1 (주) ~ 4 (수) 미국(U.S.A) LA 한인소망교회(안호용 목사)	☎(010)715-9902
5 (목) ~ 7 (토) 미국(U.S.A) LA 뱀뱀장로교회(변명익 목사)	☎(323)937-1733
10 (화) ~ 12 (목) 청주공공식수양관(원장 백효진 목사)	☎(043)269-5211
14 (토) 오전 광주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열림동 입당예배	☎(041)852-2211
15 (주) ~ 18 (수) 전주 하빈교회(정태화 목사)	☎ 016-654-6649
16 (월) 광주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19 (목) 오후 이매리안양동신학원 MT 예술제	☎(031)947-0091
19 (목) ~ 21(토) 오산리회자살기념공식기도원(원장 조희연 목사)	☎(32)834-8291
21 (토) 오전 안원 송도성당교회(조경환 목사)	☎ 011-204-4694
21 (토) 오전 인천 강북교회(김홍성 목사)	☎ 010-9204-7706
21 (토) 오후 인천 행복교회(이화영 목사)	☎ 010-5397-3478
22 (주일) 오후 광주 정공교회(박옥성 목사)	☎ 010-8540-8642
23 (월) 오후 광주 은혜교회(피승래 목사)	☎ 011-9056-7350
23 (월) ~ 24 (화) 부천 결실교회(박승래 목사)	☎(031)947-0091
24 (화) 오후 오산리회자살기념공식기도원(원장 조희연 목사)	
25 (수) 오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국기도회(대회장 김두봉 장로)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장소: 단양 대명리조트
25 (수) 저녁 평명 일직교회(김정진 목사)	☎(02)897-1192
<b>제170차 해외성회(170th Overseas Assembly)</b>	
26 (목) ~ 29 (주) 일본(Japan) 동경 광명신학교(이도원)	☎ 070-8625-9118
위원장 김태성 목사, 장소: 대명리	
30 (월) ~ 5.3 (목)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성도교회, 장소: 마닐라체육관	☎ 010-7705-8422
주최: 글로벌세계선교교회(대회장 남민우 목사)	

## 2012부활절

# 부활절의 약속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장 25~26절 -